

C  
U  
L  
T  
U  
R  
E

# 시흥문화

www.shculture.or.kr

제15회 연성문화제 스케치

기획특집 <시흥의 갯벌>

시흥역사자료전시관 둘러보기

학술논문 <강희맹의 삶과 문학>

Culture & People <조각가 안시헌>

시흥리포트5 <포동옛염전>

문화의 현장 <2003년 프락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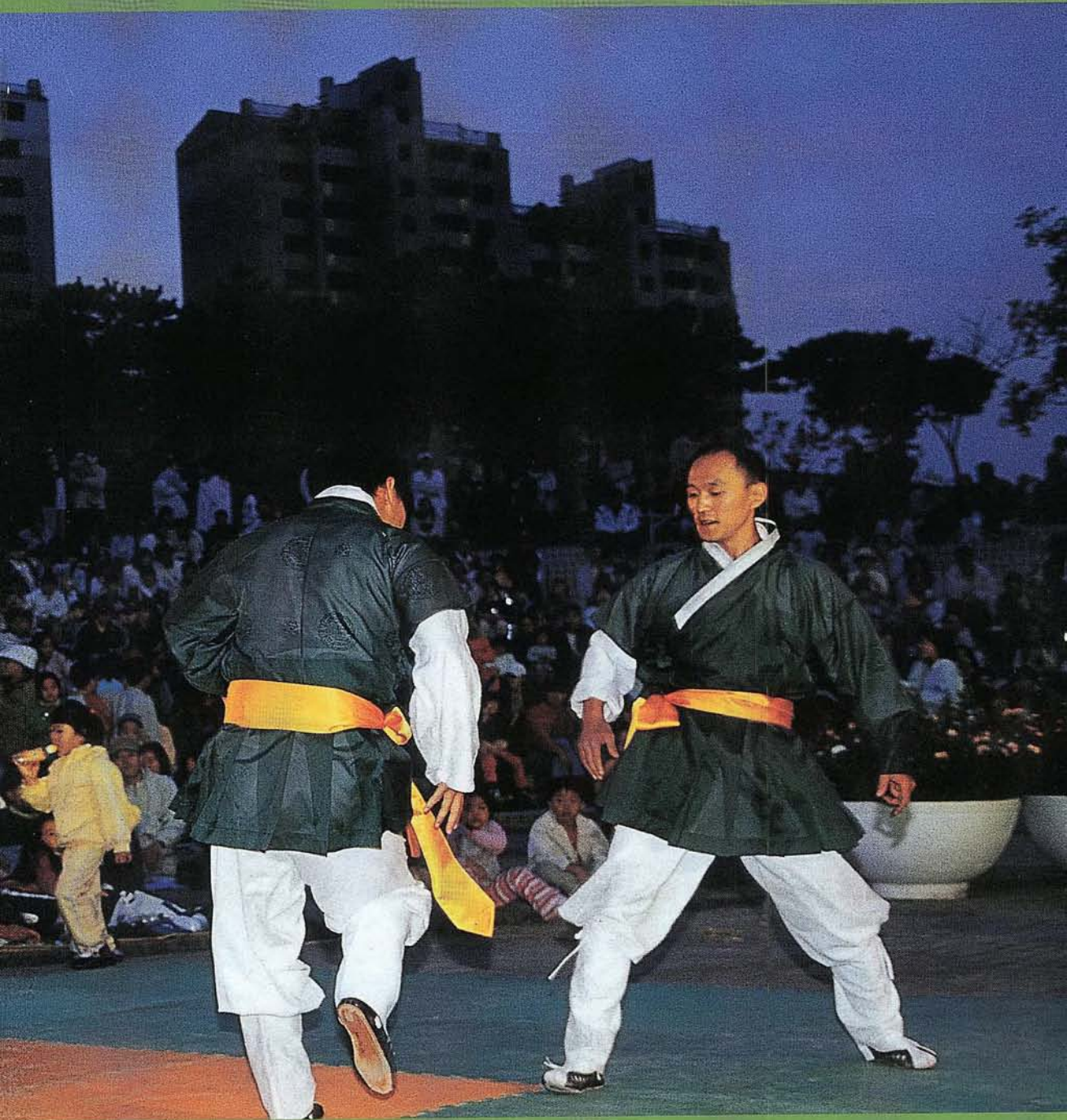
제15회 연성문화제 백일장 수상작

시흥문화원 사업결과와 계획



시흥문화원





한국 고유의 전통무예 중 하나인 태권은 춤을 추는 듯한 유연한 동작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예술적인 호신술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사진은 연성문화제에서 선보인 태권시범장면.

## I 사진 일기



글/ 김용운 · 사진/ 전병인

만들레 흙씨는 멀게는 40km를 넘게 여행한다고 합니다. 길고도 험난한 여행을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다니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시각일 뿐, 만들레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키우기 위한 처절하고 고달픈 여행입니다. 갈수록 뿌리내릴 곳을 찾기 힘들니까요. 그래도 생명은 위대합니다. 콘크리트 도시의 비좁은 틈에서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시흥의 척박한 문화환경에서도 한줄기 미소바람이 불어 문화예술의 꽃이 이곳 저곳에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향기롭게 스스로 향기를 내는, 작지만 아름다운 문화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문화의 발전이 민족문화의 정체성



2003년을 정리하며 발간하는 문화원소식지 「시흥문화」 제 6호는 지역문화의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편집하고자 했습니다.

민족문화의 뿌리인 지역문화는 그 중요성만큼 가치 있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문화의 확산과 획일화로 인하여 외면당하는 지방문화를 키우고 가꾸어야 하겠다는 의무감과 더불어, 특색 있는 지방 고유문화의 육성과 발전이 곧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인구 38만의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시흥은 그 양적인 발전에 맞는 질적인 동반자로서의 문화지도자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 높아지는 문화의식과 수준을 따라 새롭게 앞서가야 하는 책임감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시흥문화'가 문화지도자 양성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설립되어 활동한지도 벌써 8년여 되었으며 그 세월만큼 「시흥문화」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흥역사자료전시관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향토문화의 체험 공간으로 시흥문화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바람직한 문화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시흥을 사랑하고 지방 문화발전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관계자와 문화가족 여러분의 지도와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흥문화」 6호 발간을 위해 원고와 인터뷰 등으로 도움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과 시민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시흥문화원장 박 용 민



## 전통에 대한 이해와 관심 시흥문화 발전의 밑거름

지난 2003년은 새로운 세기의 입구를 지나온 한해였습니다.  
우리 시흥의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새로운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시흥문화원의 힘 있는 발걸음을 자랑스럽  
게 생각하면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와 혼이 살아 숨

쉬는 대표문화지인 「시흥문화」 제6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대의 화두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고유문화의 보존과 계승은 제1의 전제일 것입니다. 문  
화는 우리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터전입니다. 공간으로서의 자연과 시간으로서의  
문화는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근래의 풍족한 물질문명은 깊숙이 훼손  
되어 버린 자연의 소산일진대, 우리들이 갈망하는 삶의 질 향상, 문화와 자연 환경의 보존  
과 활용의 욕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개발대상 아니면 개발의 장애물로 이분하는 고정관념과 가치  
로 판단하여 보물개념으로 한정하는 발상을 전환할 때입니다. 도시문화와 전통문화가 공  
존하며, 다양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남아있는 우리 시흥시의 고유한 환경과 시민의 높  
은 문화의식은 시흥문화 인프라의 단단한 초석입니다.

그동안 제도적·인식적인 면에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보호 전승할 문화유산의 범주  
를 확대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주변 환경과 함께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  
다. 그러나 제도가 인식을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현실상의 부득이한 한계도 있었  
습니다. 우리의 문화자산 가꾸기에는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진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  
하며, 그 최선두에 시흥문화원이 서 있고 또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흥문화」 제6호 발간을 위해 애쓰신 박용민 문화원장님과 시흥문화원 가족의 노고에 대  
하여 38만 시민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 나아갈 문화원의 발전적 행보에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시흥시장 정 종 훈

## 전통문화 계승·발전 문화선진국의 첫걸음



먼저 지난 한해동안 우리 고유의 것을 찾아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용민 문화원장님과 문화원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고장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에게 올바른 향토관을 심어주는 매개체로 거듭 발전하는 시흥문화 제6호 발간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여러나라를 살펴봐도 문화적으로 선진화되지 못한 나라는 결코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아 왔듯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민이 선진문화시민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한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 의식을 한층 발전시켜 우리고장이 찬란한 옛 전통문화를 이어받아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들에게 알찬 내용을 가지고 시흥문화지가 발간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다시한번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애쓰고 계시는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흥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시흥시의회장 김 왕 규

# Contents

04 사진일기

05 발 간 사

06 축 간 사

## 제15회 연성문화제 스케치

10 사진으로 보는 연성문화제

20 故 이한기 선생 수집자료 전시회

22 연성문화제 가족체험기

## 기획특집 \_ 시흥갯벌

28 특별기고 생태보고, 시흥갯벌의 부활

34 Interview 시흥갯벌과 이사람  
오이도 어촌계장 박영홍

## 시흥역사자료전시관 둘러보기

39 5천년 역사의 숨결이 한눈에

44 옥터초교 학생들의 문화원 견학기





www.shculture.or.kr

## 학술논문 \_ 강희맹의 삶과 문학

- |                |    |
|----------------|----|
| 1. 강희맹의 생애와 문학 | 47 |
| 2. 강희맹의 삶과 업적  | 61 |

## Culture & People

- |           |               |    |
|-----------|---------------|----|
| Interview | 기원으로부터의 짧은 여행 | 70 |
|           | 조각가 안시헌       |    |

## 시흥리포트 5 \_ 포동엿염전 75

## 문화의 현장 \_ 2003년 프락콘서트 82

- |       |    |
|-------|----|
| 현장스케치 | 85 |
| 참여수기  | 86 |

## 제15회 연성문화제 백일장 수상작 89

## 시흥문화원 사업결산과 계획 98



# 연성문



불거리, 줄거리 동성

전통과 함께 한 3일간의 축제 속으로...

# 회 화 제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연성문화제가 세심한 준비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까지는 무대공연을 중심으로 한 관람위주의 행사였지만, 올해부터는 전문 이벤트 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해 무대공연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설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특히 둘째날 열린 '양희은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에는 2,000여명이 넘는 관객이 비둘기공원 야외공연장을 가득 메우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연일 계속됐던 파란하늘과 직접 참여하는 열린축제로 온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연성문화제 속으로 들어가 보자.

First-day

[10월 2일 첫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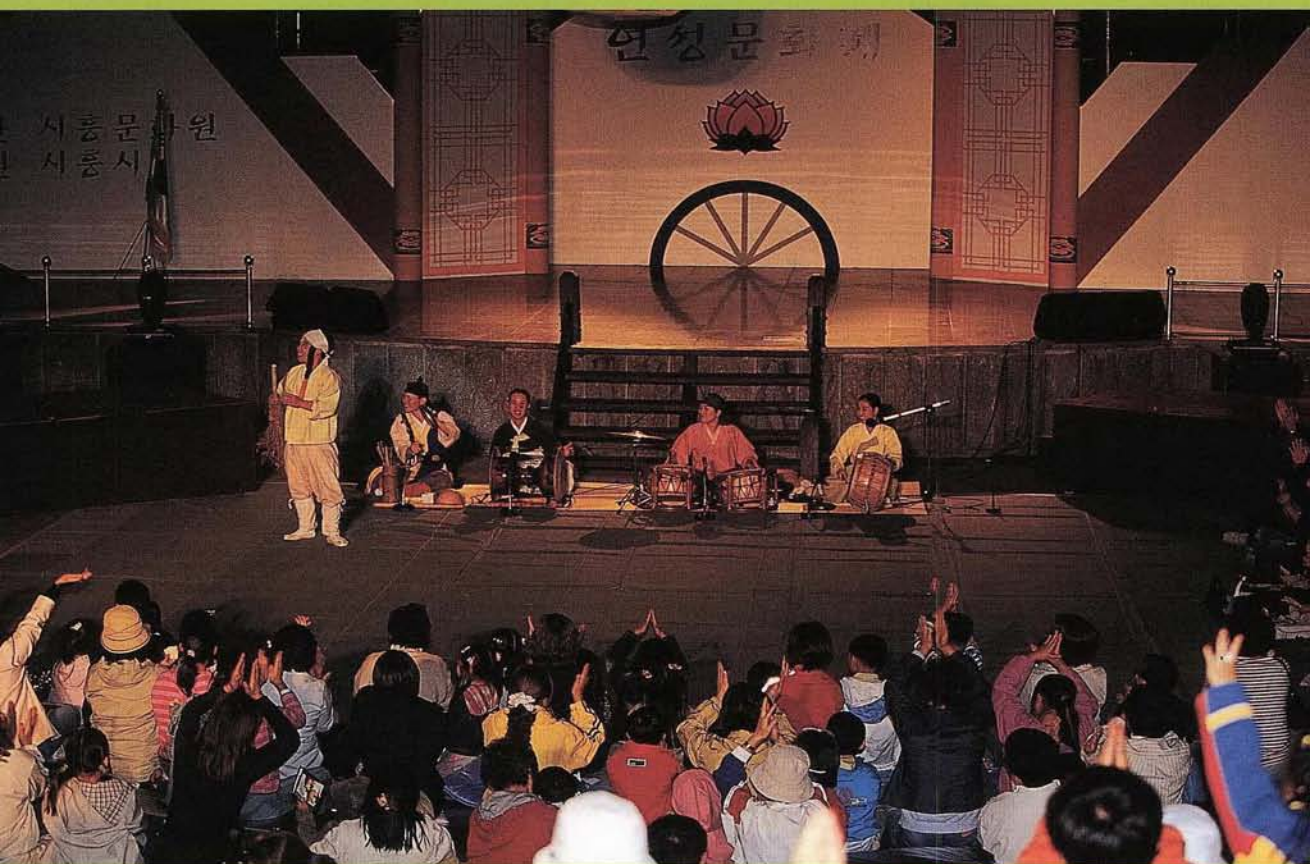


아동극(마법사와 괴물대모험)

Yeonseong Festival  
15th

동네에 큰 행사가 있으면 예부터 풍악을 울려 그 시작을 알렸다. 10월2일 전통연희단 '꼭두쇠'의 길놀이로 본격적인 제15회 연성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10월 초입에 들어 제법 쌀쌀해진 저녁날씨에도 대공연장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마법사와 괴물대모험'이라는 아동극을 진지하게 관람하고 있었다.

식전행사로 이어진 시민들의 눈길은 무대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이색적인 북한전통 '쟁강춤'의 화려한 몸동작과 경쾌한 리듬에 매료된 관객들. 특히 개막식 이후 이날의 마지막을 장식한 마당극 공연 '흥부네 박 터졌네'는 경상도 사투리가 걸쭉하게 배여있는 배우들의 익살스럽고 능청스러운 연기에 남녀노소 모든 관객들이 박장대소한 인기 공연으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 마당극 공연/흥부네 박 터졌네



▲ 장강춤

Second-day

[10월 3일 둘째날]



가야금 산조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높은 하늘에 하얀 조각구름이 수를 놓은 전형적인 가을의 모습이었다. 모처럼 쉬는 날 아이들 손잡고 공원을 찾은 가족들. 일찍부터 시작된 백일장으로 잔디밭이며 벤치 할 것 없이 모두들 글쓰기에 여념이 없다. 휴일임을 고려한 다양한 무대행사는 가족들이 함께 관람하기에 안성맞춤. 빨간 코, 뽀글뽀글 노랑 머리, 알록달록한 옷. 피에로의 마임, 마술 공연을 시작으로 '엄마목소리', '아줌마노래단', '미추홀요들단' 등 다양한 볼거리가 관객들을 압도했다. 전문가 팀의 공연에 이어 전통무예 택견, 태권도, 어린이 합창 등 시흥시민들이 직접 꾸미는 무대도 마련됐다. 조금은 서투른듯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축제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으로 무대를 끝까지 지켜냈다.



양희은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피에로의 마음/마술 공연



가수 배따라기의 양현경 씨



권순우 밴드/아름다운 청년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양희은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이 시간을 기다린 2,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은 일찍부터 부산 하계 자리잡기를 시작했다. 시흥시 출신 가수 배따라기의 양현경 씨, 핸드벨 앙상블 '조이', 색소폰 앙상블 '스카이', 권순우 밴드, 아름다운 청년, 가야금 산조 등 음악회가 무르익자 나타난 가수 양희은 씨, 기다린 만큼 긴 공연은 아니었지만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인기 가수 공연인자 모두들 손바닥이 뜨겁도록 박수를 쳤다.

Third-day

[10월 4일 셋째날]



월미도풍물놀이

오후 2시. 은행동 종합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강희맹과 관곡지' 학술토론회를 시작으로 축제 마지막날 행사가 시작됐다. 연성문화제를 화려하게 장식한 이날의 하이라이트 행사는 장승깨기 체험과 장승제 그리고 월미도풍물놀이 재현. 상설행사가 진행되는 마당에서 온가족이 함께 장승깨기에 열중하는 동안 메인무대에서는 전날 있었던 인형극과 마임, 마술공연이 이어지고,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서 장려상을 받은 월미도풍물놀이가 은행동 농협앞 광장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온동네가 축제장이 되어 길 가던 주민들까지 공연속으로 끌어들인 진정한 시민을 위한 축제였다. 폐막공연과 백일장 시상식 그리고 폐회사를 끝으로 저녁 7시경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싸늘해진 가을바람이 주민들의 열기로 한층 포근하게 느껴졌던 밤이었다.



장승깎기



사진전



장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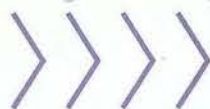


백일장 시상식



강희령과 관공지 학술토론회

Every-day



## [상설행사]



널뛰기

“와 ~”, “아 ~” 아이들이 지르는 과성을 쫓아 공원 한켠 너른 마당으로 발을 옮겼다. 작은 공간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 낮선 놀이에 낯을 잃은 아이들. 두 사람만 올라서야 할 널판에 대여섯명이 쭉 늘어서 연신 소리만 질러댄다. 그런 상황에서 널뛰기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허공을 이미 여러번 경험한 듯하다.

가장 인기있는 코너는 투호놀이.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줄을 벗어나 앞사람 하는 것을 유심히 봐둔다. 하지만 막상 차례가 되어 활을 던지면 보는 것처럼 호락호락 향아리에 가 꽂히지 않는 것이 무척 아쉬운 표정들이다. 이 외에도 팽이치기, 자치기, 비석치기, 윷놀이, 굴렁쇠 등 온가족이 전통놀이에 푹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른다. 그 뒤로는 연와탁본, 도자기 빚기, 짚풀 공예 등 전통체험과 페이스페인팅, 칼라믹스 등이 마련돼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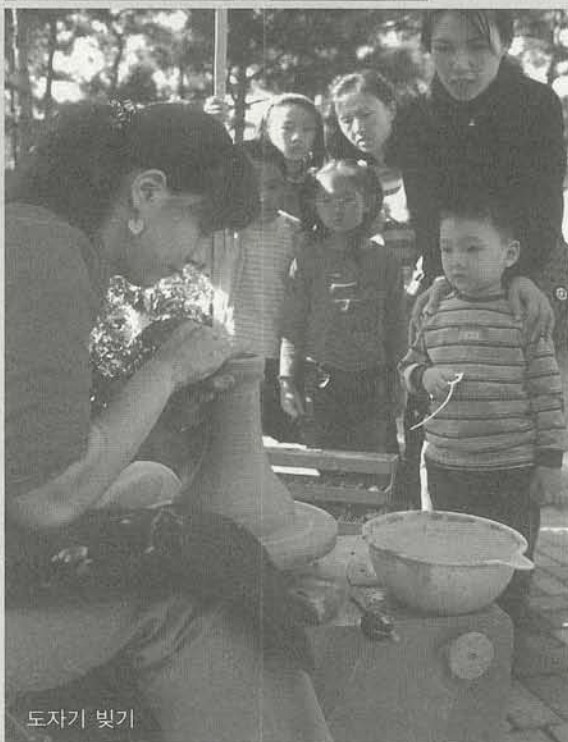
짚풀공예



페이스페인팅



칼라믹스



도자기 빚기



## 향토사료가 故 이한기 선생 수집자료 전시회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시흥시 문화유산 발굴과 문화재 지정에 헌신한 故 이한기(시흥시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상임위원, 1945~2002) 선생.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수집자료 전시회가 제15회 연성문화제 기념으로 10월1일부터 10일까지 시흥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시흥문화원이 주관한 이 전시회는 '옛 책과 옛 문서의 향기', '시흥군에서 시흥시로', '변화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주주의의 꽃' 등 4가지 테마로 멀게는 조선시대의 고서에서부터 가깝게는 90년대 시흥시장 임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향토사료가 전시되었다. 시흥문화원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지난 2003년 5월30일 시청 지하서고에서 잠자고 있던 이한기 선생의 향토사료 중 일부의 목록작업을 시작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선생의 가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시청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하고 10월 중 이에 대한 2차 목록작업에 들어갔다. 전시회가 시작되던 10월1일에는 이렇게 작성된 제1차목록작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그 가치와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 오헌집



▲ 연지사적



향토사료실 김락기 전문위원은 “제1차 목록작업 결과 고서와 고문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가 1980년대 이후의 것으로 일제강점기와 1950~60년대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복본을 제외한 전체 조사건 수가 1만점이 넘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내 보관중인 자료와 2002년 10월 선생의 유품전을 주최한 과 천문화원의 소장자료 등 분산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더하면 이보다 훨씬 방대한 자료가 모일것으로 기대되며, 이 자료들을 시흥시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록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회 개막식 및 목록작업 결과보고회의에는 시흥시장, 문화원장, 의장, 유족 김세경 여사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선생의 업적을 기렸다.



연 · 성 · 문 · 화 · 제

가족체험기

1 > > > >



Yeonseong Festival  
15th

[연성문화제 첫번째 날]

## 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기

함 순 애(42) / 매화동  
이 승 현 / 매화초등학교 4학년

깊어가는 가을! 차가워지는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때. 언제나 엄마와 함께함에 익숙해져 있는 둘째아들 승현이와 비둘기공원에 다달았을 때 마법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길을 물으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팸플릿을 받아 들고 무대앞에 자리하니 벌써 아동극이 시작되고 있었다.

등장하는 괴물과 인물들은 구연동화를 배우고 있는 나로선 정말 관심있게 여러부분을 지켜보게 되었고 표현하는 방법과 모습이 획기적이었다. 마법의 숲으로 생명의 나무를 찾아가는 괴물들은 고생을 하며 꿈과 소망이 있는 곳을 찾아 결국 인간이 될 수 있는 생명수를 얻었지만 괴물써커스단 단장 손에 잡혀 생명수를 빼앗기고 써커스단에서 일을 하던 중 불이 나서 단장이 불에 타서 죽어가자 인간이 되고 싶은 괴물들은 인간이 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그 생명수를 단장에게 먹여 살리는 것이다. 결과에 대해 기대함이 없이 희생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의 출발이다.

괴물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깨달아 인간이 되었다. '내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주변에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열심히 남을 배려하는 이웃이 많다. 서로 힘들지만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힘이지만 나누려고 한다. 인생에서 40대 이후의 모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매화동에는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해울림' 이란 풍물 동아리가 있다. 승현이도 우리의 소리를 좋아한다. 장단에 몸을 맡기고 선율에 몰입하는 모습이 멋있다. 국악협회 '꼭두쇠'의 공연에 승현이와 나예겐 큰 볼거리였다. 이제는 소리를 들으면 '아! 어떤 가락이구나' 하며 어깨가 절로 들썩이며 흥이 난다. 신명을 다해 공연하는 모습에 흥분이 되며 몰두하게 된다.

북한 전통춤인 쟁강춤은 오늘 처음 접해보는 장르이다. 아무 예비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지켜보았는데 음악은 절도 있고 박진감이 넘쳤고, 빠른 춤사위가 인상적이었다. 간혹 방울소리가 나기도 했다. '쟁강' 이란 '얇고 무거운 쇠붙이 따위가 맞부딪쳐서 소리가 난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아! 그래서 방울소리가 나는 것이었구나!'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가야금 소리가 귀에 '쟁쟁' 하고 다시금 귓가를 스친다. 그 여운이 오랫동안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 같다.



연 · 성 · 문 · 화 · 제

가족체험기

2>>>>



연와탁본



투호놀이

Yeonseong Festival  
15th

[연성문화제 두번째 날]

## 반딧불이가 밝힌 가을밤의 축제

손 보 경 (38) / 매화동

정 우 준 / 매화초등학교 5학년 · 정 옥 준 / 매화초등학교 3학년

개천절이라 휴일인 연성문화제 두번째 날, 아이들을 데리고 일찍 비둘기공원으로 향했다. 어제와는 달리 공원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이 가득했다.

먼 방망이를 들고 연꽃무늬 기와에 먹물을 찍어대는 아이들. “오호, 연와 탁본!” 투호와 팽이치기, 그리고 자치기에 열심인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도자기 만들기 몰레 시연. 전통놀이 체험 마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신이 난 모습이었다.

“하나, 둘, 셋, 넷……” 입을 모아 수를 세는 소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보았다. 허공을 가르며 하늘 높이 올랐던 제기가 마술처럼 신발에 붙었다 다시 하늘로 올랐다. 숫자가 커질 때마다 모인 사람들의 환호도 점점 커져 갔다. 우준이와 옥준이는 제기 차는 아저씨의 신기에 가까운 모습에 넋을 잃고 있었다.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와 ~”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우준이와 옥준이도 제기차기에 도전했다. 하나 치고 나면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를 몇 번. 보기와는 달리 어려운 제기차기 도전은 그냥 일찍 끝나야 했다. 제 멋대로 날아가는 제기의 의지를 꺾을 제간이 아이들에게는 없는 듯 했다.

이번 도전은 투호, 옛날 궁중이나 양반 집에서 즐겼다는 투호는 청동 향아리에 화살을 던져 넣는 놀이다. 우준이가 이번엔 투호에 도전했다. 처음엔 통을 빗겨나가던 화살이 세 번째부터는 통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했다. 7개 성공. “와! 네가 최고점이다.”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갔단다. 다음은 옥준이 차례다. ‘쑹 ~ 피익, 톱’ 향아리를 맞고 튀어나오는 화살들. 아무래도 화살은 옥준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겼던 전통체험에 이어 386세대에게 큰 선물인 ‘양희은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Joy Handbell 앙상블’의 핸드벨 연주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 들때쯤 갑자기 들려온 외침이 있었다. “엄마 저것 좀 보세요, 반딧불이에요” 가을밤하늘을 수 놓고 있는 두 마리의 반딧불이었다. 청정지역에 서식한다는 반딧불이를 아파트 숲인 비둘기공원에서 보게되다니, 귀는 은은한 선율에 점점 젖어 가는데 눈은 반딧불이를 쫓았다.

시흥시에 살고 있다는 배따라기의 양현경씨 무대와 권순우 밴드, 노래하는 아름다운 청년의 무대가 계속 이어졌다. 드디어 가수 양희은의 시간. 우리와 같은 환호와 함께 시작된 ‘내 나이 마흔살에는’ 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라던 어린 시절, 그러나 지금은 다시 서른이 된다면 날개 달고 날고 싶은 사십이란다. 난 아직 삼십대. 머지않아 맞이할 사십엔 양희은씨의 노랫말처럼 삼십대를 그리워하겠지. 만약 삼십이라면 날 수 있다고...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해야겠다. 양희은을 만나기 위해 아침도 먹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역시 양희은이다. 아파트 숲속에 자리잡은 비둘기공원의 야외무대, 양희은의 매력있는 목소리는 가을의 깊이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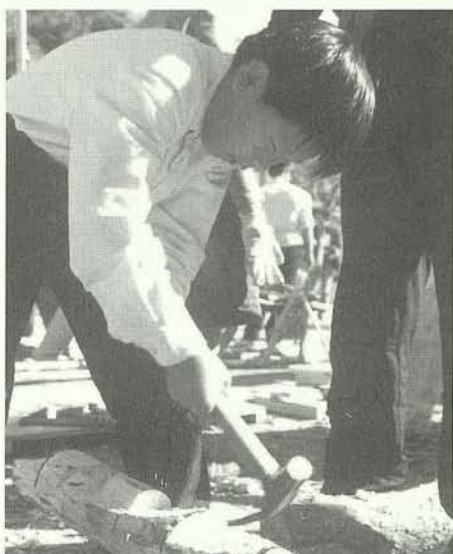
영당이를 들썩이는 아이들을 달래가며 듣는 음악회의 맛, 반딧불이를 쫓아가려는 개구쟁이 옥준이를 말리느라 진땀을 빼며 심취했던 가을 음악회, 주위의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잠을 청하고 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음악에 빠지고 아이들은 잠에 빠져들었다. 가슴엔 반딧불이를 찾아 희망을 그리며...



연 · 성 · 문 · 화 · 제

가족체험기

3>>>>>



Yeonseong Festival  
15th

[연성문화제 세번째 날]

## 장승 만들기 가족체험



정 우 준 / 시흥매화초등학교 5학년

연성문화제 마지막 날은 장승깎기를 했다. 출발 전 엄마는 장승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라고 하셨다. '장승은 이미 학교에서 배워 알고 있는데. 솟대도 아는데…….' 엄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난 어쩔 수 없이 동생 옥준이를 데리고 검색을 시작했다. '돌로 만든 석장승, 나무로 만든 목장승, 장대에 새를 깎아 꽂은 솟대. 장승의 역할은 마을과 마을의 경계를 알려주거나 이정표의 역할과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검색한 자료를 프린트 해 동생 손에 쥐여주고 아빠 차에 올라탔다. 손재주가 없는 엄마에게 우리를 맡기는데 불안한 아빠의 특별 배려로 오늘은 '아빠와 함께 하는 가족 체험'이 시작되었다.

소나무가 한 가정에 한 그루씩 배정되었다. 장승을 만들기 전에 먼저 '소지'를 썼다. '우리가정이 웃음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의 소원을 담아 장승 만들기를 시작했다. 커다란 서에 붓으로 장승의 얼굴을 멋있게 그리고 아빠는 톱질을 시작하셨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야 잘 깎을 수 있다며 우리에게는 나무를 밟고 있으라고 하셨다. 한발로 밟았다가 두 발로 밟았다가 미끄러워 넘어질까 뒤뚱뒤뚱 그렇게 한참을 소나무와 씨름을 했는데도 장승의 이마만 간신히 끝났다.

이번엔 한쪽엔 망치가 한쪽엔 끌이 달린 자귀라는 연장으로 툭툭 툭툭, 눈을 만들고 코를 깎고 제법 장승의 얼굴 모습이 갖추어져 갔다. 아빠는 힘이 드신지 땀을 흘리고 계셨다. 동생과 나는 이때다 싶어 연장을 집어들었다. 턱을 다듬고 수염을 다듬고.

"어휴"—; 낯선 연장질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조심조심 눈을 다듬다 빼끗. "엄마야, 이를 어쩌나……."

한 쪽 눈이 잘려 나갔다. 아빠의 눈치를 살피보았다. 다시 연장을 드신 아빠는 어찌 할까 난감해 하셨다. 장승마을에서 오신 선생님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담당했던 장승이기 때문에 눈매가 매서워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이시며 눈꼬리를 높여 수정 작업을 도와 주셨다. 간신히 수정 작업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몸통 다듬기. 넓직한 끌로 나무의 앞면 전체를 다듬었다. 그리고 김선생님의 마지막 작업. 눈썹과 입을 그려주시고 '천하대장군'이라고 먹으로 크게 써 주셨다. 장장 3시간이 걸린 대 작업이 끝났다. 완성된 장승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집 앞에 세워놓으면 우리 가정을 지켜 주는 가정의 수호신이 되어주겠지? 어떻게 집으로 가져갈까?' 고민이 생겼다. 그런데 엄마의 생각은 달랐다. 집에 가져가면 우리가정만을 지켜주지만 다른 곳으로 가면 많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알긴 하지만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 가족이 만든 작품인데…….'

우리가 만든 장승은 대야복지관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아쉬운 마음으로 트럭에 실려 가는 장승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야복지관 앞에 우뚝 서서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수호신 역할을 다 할 장승의 듬직한 모습을 기대했다. 나는 언제 장승을 만나러 갈까?

| 기획 특집 |

**시흥갯벌**

특별기고

## 생태보고, 시흥갯벌의 부활

글 | 안 만 홍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사무처장

시흥의제21 교육분과위원장





**바**다에 가면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는데 바닷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갯벌은 광활한 장관을 이룬다. 갯벌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갯벌생물들은 모두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갯벌은 육지에서 우리가 버리는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한다. 갯벌 1평방킬로는 사람들 10만명이 버리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갯벌의 갯지렁이 500마리정도가 한 사람이 하루동안 버리는 대소변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갯벌에 사는 조개, 고둥, 게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화작용을 하는 청소부이자 정화조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갯벌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들도 자주 찾는 먹이처이다. 새들이 갯벌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은 우리 지역인 오이도에서 항상 볼 수 있는 풍경이다.



## 갯벌을 따라 들어가 보자

**개**흙을 발에 묻히자마자 보게되는 생물이 민챙이다. 민챙이의 느긋함과 좁쌀무늬고둥의 사체처리활동—표현이 좀 살벌한가—좁쌀무늬고둥, 이 녀석은 갯벌의 하이어나 혹은 청소부라고도 하는데 주로 죽거나 죽어가는 생물을 찾아 모조리 먹어치워 갯벌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좁쌀무늬 고둥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를 살짝 들쳐보면 거기엔 어김없이 죽은 갯벌생물의 흔적이 있다.

갯벌바닥을 쓸며 다녀서 그 다닌 자리가 마치 한 폭의 추상화같다고 하여 갯벌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민챙이는 그 알이 참 신기하다. 민챙이 알은 마치 물을 뭉쳐서 가뒀놓은 꼴을 하고 있다. 얇은 고무풍선에 물을 담은 모양 바로 그대로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알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 갯벌 교육을 하며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갯벌생물들은 40℃ 이하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오래 주물럭거리면 죽고 만다. 이점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주의해야 할 점이다. 또한 우리가 갯벌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갯벌에 사는 생물친구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생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갯벌에 들어가서 마구 생물들을 캐서 가지고 나오거나 오래도록 만지거나 장난으로 다리를 자르거나 하는 행동은 정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어부들에게 갯벌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나 도시어른들은 재미로 나와서 어린 조개든 게든 아무렇게나 만지고 캐서 가지고 나와 결국은 먹지도 못하고 죽이고 만다. 바다는 무한정 사람이 원하는 것(자원)을 대 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갯벌을 들쭉시키고 나면 바로 바로 다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캐고 가지고 나오고 밟고 하면 결국에는 갯벌에서 우리는 다양한 갯벌체험을 못할 수도 있다. 보고 싶어도 못보고 돌아서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갯벌은 참 재미있다. 그러나 그 곳에도 생명이 있고 그곳의 생명체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갯벌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항상 갯벌에 가면 손에 손에 갈코리와 호미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눈에 띈다.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안 보이기를 기대할 뿐이다.



## 갯벌친구들의 재롱잔치

**알**록달록 아름다운 비단무늬를 갖고 있다해서 붙여진 서해비단고둥, 동죽, 바지락, 모시조개 등의 다양한 조개들, 방게, 칠게, 길게, 밤게 등 다양한 게들도 갯벌에서 흔히 대하는 갯벌친구들이다. 특히 밤게란 놈은 앞으로 뒤로 옆으로 가는 전천우 기능을 갖춘 놈이면서 걸 꺾데기가 단단해 다른 생물들이 잘 먹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접근해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 손을 대면 집게손을 높이 쳐들고 한번 해볼래 하는양 쪽쪽 뿜는 품새가 자못 귀엽기도 하다. 이 녀석들은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짹짹기를 열심히, 공개적으로 해서 갯벌에 가면 짹짹기 시기에는 눈가는 대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놈들이다.

칠게는 싸울 때 재미있다. 서로의 집게발을 옆으로 뻗어 누가누가 긴지 재 보다가 다리가 짧은 게가 '나 져소' 하고 도망간다. 이들의 싸우는 방식이다. 우리 사람들도 서로 피를 흘리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싸운다면 어떨까?

방게의 생존방식을 보면 게들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의 생물 모두가 그렇듯이 방게도 그냥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다 이유가 있고 놀랍다.

갈대를 살피다 보면 그 사이에 방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게들은 갯벌 구멍에서만 집을 짓고 사는 것으로 아는데 왜 방게가 갈대에 있을까 의아해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갈대에 관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갈대가 있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



**갈**대는 우리가 흔히 물가에서 볼 수 있는 수변식물이다. 강이나 바닷가 주변에는 어김없이 갈대군락이 있는데 갈대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주로 서식한다. 이 친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 갈대다' 하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갈대가 있는 곳에는 그 이유가 있다.

갈대는 강에서 흘러오는 쓰레기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강이나 육지물가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은 갈대군락을 거치면서 걸러지고 많이 깨끗해져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일차로 걸러진 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데 또 여기서 이차적으로 갯벌에서 걸러지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돈 안들

이고 오염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짓는 하수처리장의 역할을 공짜로 해주고 있는 셈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러한 갈대의 뿌리는 서로 엉켜있어서 갈대를 뽑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뿌리가 잘 안 빠진다. 서로 엉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엉킨 뿌리들 사이로 바로 방게들이 구멍을 내어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해준다. 그러면 그 구멍사이로 이들이 떨어지고 이들이 썩으면 거름처럼 갈대에게 영양분을 제공한다. 방게들은 갈대가 걸러낸 오염물질 중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먹고 오염물질은 처리·분해해서 깨끗하게 하고 자기들의 몸을 숨기는 장소로 이용한다. 서로 공생하는 것이다.

## 요건 몰랐지?



**항**상 갯벌 체험교육을 나갈 때면 퀴즈를 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갯지렁이집이다. 갯벌 중간쯤 들어가다보면 마치 갯벌 속에서 누군가 빨대를 꽂고 숨을 쉬는 모양의 툇 튀어나온 빨대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갯지렁이집이다. 항상 "이것이 뭘까?"하고 퀴즈를 내지만 이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갯지렁이집이라고 맞추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아마 갯지렁이가같이 손도 없는 미끈한 형태에서 그런 집을 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갯지렁이는 강력접착제 역할의 분비액으로 개흙을 붙이고 여기에 작은 조개껍데기 등으로 덧붙여 길쭉한 집을 만드는데 이 속에서 갯지렁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할 따름이다. 이보다 더 신기한 경우도 있다. 바로 큰 구슬우렁이 집이다. 갯벌을 관찰하다보면 마치 피티빙 위쪽을 자른 조각모양의 둥그런 원형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슬우렁이 집인데 이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접착분비물로 갯벌흙을 곁에 붙여 집을 만든다. 생각보다 아주 매끈하게 잘 만들어져서 손으로 만져봐도 개흙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뜯어서 손가락으로 부벼서 부숴봐야 '아하 개흙이구나' 한다.



## 조개굴멍은 누가?

갯벌을 걷다보면 자주 발견되는 것이 조개껍데기이다. 껍데기만 남아 색깔이 하얗게 바랜 형태의 조개껍데기를 자세히 보면 위쪽에 아주 작은 동그란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이 구멍은 어떻게 뚫려진 것일까? 누가 뚫었을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리 보고 저리 보며 고개만 갸웃거리다 오래되어서 자연스럽게 난 구멍이란 대답과 새가 쪼아 먹은 구멍이란 대답이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이 구멍은 고둥이 조개를 고둥의 혀(지설)로 녹여서 뚫은 구멍이다. 그 속으로 분비액을 넣어 조갯살을 녹여서 쪽쪽 빨아 먹는 것이다. 고둥이 먹고 난 흔적인 셈이다.



우와 신기하다! 하는 우리 친구들의 감탄사를 듣는 것은 참 기분 좋다.  
이런때면 환경교육을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곤 한다.  
참으로 갯벌에 사는 생물들은 봐도 봐도 신기함이 넘치는 친구들이다.  
또한 갯벌은 생명의 보고이자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을 알 수 있는 최고의 학습장인 것이다.



## 시흥갯골 생태공원 조성

시흥시 포동과 장곡동 일대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내만갯벌과 옛염전이 자리한다. 시흥시는 2003년 8월 이러한 뛰어난 자연자원에 대한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시흥갯골생태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3년 9월에는 경기도 지정 생태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생

태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소금창고 2개동, 토판, 웅패판, 타일판 등 다양한 소금생산지 10,000㎡를 복원하고 어린이해수풀장, 진흙놀이장, 모래체험장, 맨발광장 등 20,000㎡의 염전체험장을 설치하였으며, 내만갯벌쪽으로 바다생물지압원, 배조합놀이대, 탐조대, 바다생물 전시가벽, 갯벌생태학습원 20,000㎡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GB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변영 등 행·재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2010년까지 갯벌생태공원은 물론 인물공원, 해안생태해설관, 해안식물전시원, 소금박물관, 가족휴양동산 등을 추가 설치하여 다양한 테마를 가진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기획 특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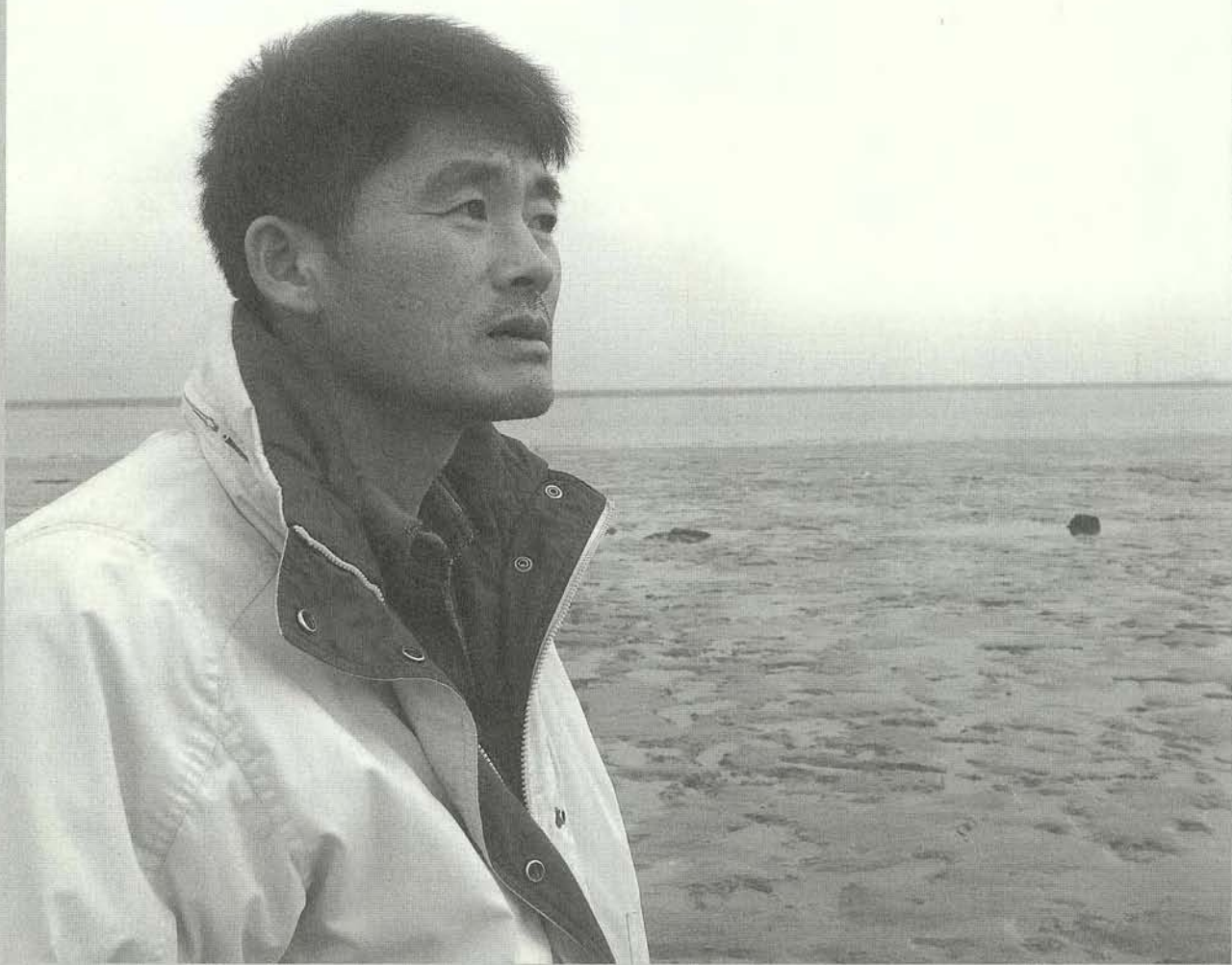
**시흥갯벌**

시흥갯벌과 이 사람

# 오이도는 내 삶의 이유

오이도 어촌계장 박영홍

글 | 신 연 호  
자유기고가





**조** 상 대대로 갯벌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그땅은 어떤 의미일까? 17대째 오이도 토박이로 살고 있는 박영홍씨(44)를 만나면 어렵잖게나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비 많이 오거나 바람 세게 불면 오세요. 우린 그때가 켈로 한가하니까...” 한가한 시간이 언제쯤이냐고 물었을 때 날아온 답이다. ‘몇 날 몇 시’의 정확한 약속은 아니더라도 ‘무슨 요일 오전 혹은 오후쯤’의 대답을 원했는데, 그만 말문이 막혀버린다. 이 사람, 처음부터 특별한 느낌이다.

하긴 사전에 조사한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저 평범한 뱃사람은 아니지 싶다.

시민단체와 함께 오이도갯벌 매립을 백지화시킨 주역, 낚싯배 운영이 생업인 오이도 어촌계장, 시 흥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이도갯벌에서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강사로 참여해 오이도의 유래와 선사유적지, 갯벌생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 이쯤 되면 소신과 사명감이 뚜렷한 사회운동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정작 그는 자신의 그런 이미지가 부담스러운 눈치다.

“사람들이 나더러 환경운동가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부딪힌 것뿐이지.”

그러면서도 환경 문제나 갯벌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 많은 사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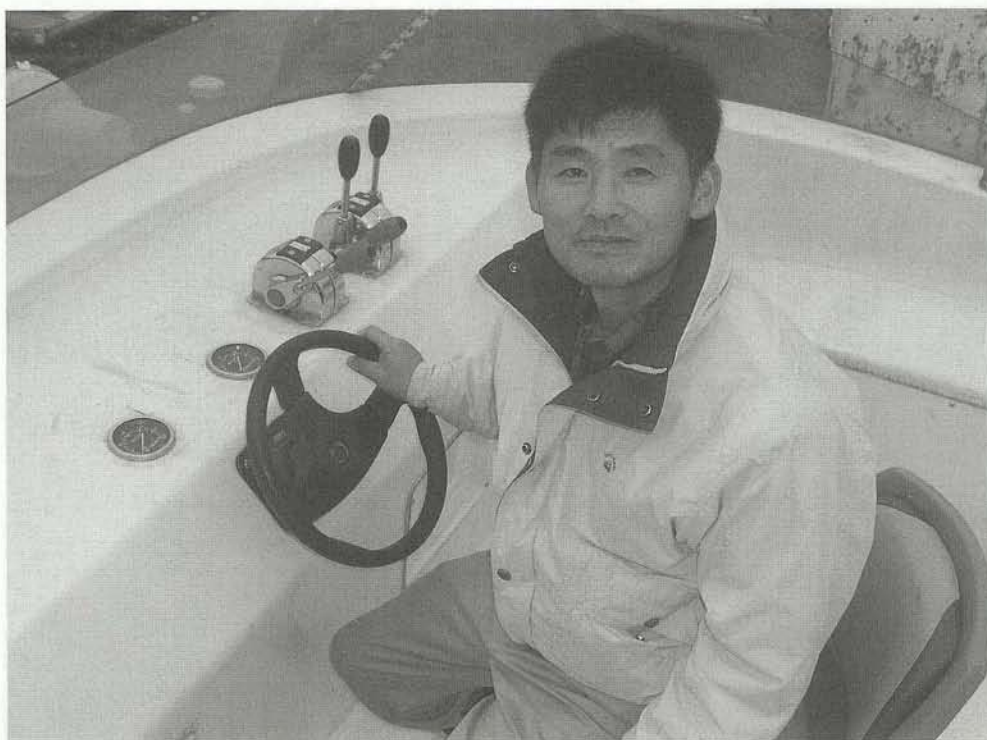
“지금이야 황새가 천연기념물이지만 예전에는 오이도에 황새가 천지였어요. 오죽하면 황새바위란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어릴 땐 그걸 잡아먹었다고, 청둥오리도 그렇고...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민들이 잡아먹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공장 들어서고 매연 심해지니까 못 살게 된 거지.”

환경운동가가 아니라며 손사래 치는 이 사람 말을 아무래도 끝이곧대로 들어서는 안될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시화공단 입주 시작되던 무렵으로 올라간다. 어느 날 창문 밖의 사소한 행복을 잃게 된 것이 계기라면 계기였다.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공단에 화학공장이 제일 먼저 들어섰어요. 당시 우리 집은 창 밖을 내다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염전에 눈이 쌓여 있으면 창문만 열어도 술이 확 깨 버리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냄새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냄새는 가실 기미가 없고 신고를 해도 회사는 벌금만 물고 말더라고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회사가 문을 닫겠거니 했던 소박한 생각을 접고 곧 행동에 나선다. 도대체 무엇하는 회사인지 알아나 보자는 생각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서울의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회사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5대 대형폐기물업체 중 한 곳이라는 것이었다. 박영홍씨는 그 큰 회사와 싸움을 시작했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투쟁에 동참했다. 그러나 싸움은 길기만 했고 점점 지쳐갈 즈음에 시화호의 썩은 물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냄새’ 건은 아파트에 맡기고 그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방류 반대 운동에 참여한다. 데모가 일상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는 이후에도 갯벌의 매립을 막아내고 또 다른 패총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안말 지역의 개발계획을 막아냈다. 시민단체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노라 고백한다.

“내 고향을 지키자는 노력입니다.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더 큰 걸 지켜낼 수 있겠어요? 결국은 내 것을 지키는 놈이 대의적인 것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국가나 마을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안말 지역의 개발 반대는 선례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육지는 문화재를 발굴하면 그대로 공사가 중지되는데 바다 쪽은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으니 그것을 제대로 잡아 놓자는 생각이었다. 매립되는 갯벌이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일년간의 실험결과(?)를 제시했다.

“동네 아주머니한테 일년동안 조개 캐는걸 가게부처럼 적어보라고 했더니 1월부터 10월까지 벌어들인 돈이 천백만원이 넘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라 일요일은 무조건 빠지고 비 오는 날도 빠지고, 갯벌에서 만나질 일해 이만큼을 번 거예요. 단순히 호미 하나만 들고서, 갯벌에서 조개 캐는 일이 채산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바다에 또 갯벌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오죽하면 결혼하고 나서 꾸준히 먹고살 직업으로 갯질이 되었다는 말을 할까? “바다는 관리만 잘하면 노다지예요. 씨뿌릴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잡기만 하면 돼요. 잡아도 사라지지 않고 내일도 있고, 모래도 있잖아요. 호미 한 자루만 있으면 한나절 갯벌에서 조개잡고 굴 따는 거 문제 없는데, 바다만큼 큰 은행이 어디 있었어요?”

30년 만에 우리 식탁에서 고기의 중요도와 해산물의 중요도가 바뀌었고 조개 값도 점점 오르는 추세라고 말하는 박영홍씨, 그의 요즘 이슈는 오이도 어업권의 회복이다. 87년 공단 입주에 따른 보상비를 받으면서 주민들은 어업권을 잃었는데 이젠 공단 조성이 끝났으니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 “전에는 지천에 널린 게 꽃게였고 조개는 밟고 다녔어요. 그래도 어민들 끼리 협정해서 하루에 50kg, 100kg만 잡았어요. 두 세 시간 동안 그렇게 잡아서 우마차에 실어 나왔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해도 50kg 넘기는 게 힘들어요.” 관광객들이야 어장관리 개념이 없으니 새끼조개까지 무분별하게 잡아대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 갯벌에는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어민들이 어업권을 회복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관리구역도 지정하고 한편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갯벌체험장도 만들 계획이다.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어장도 보호하고 주민들 살림도 펴 수 있게 하는 좋은 방편이지만 어업권 회복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한국화약주식회사와 수자원공사, 서해수산연구소 등 무려 6개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중 다섯 곳이 찬성을 하고 한 곳이 반대를 해도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

반나절동안 박영홍씨는 갯벌에 대해 그리고 오이도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참으로 박식하고 오이도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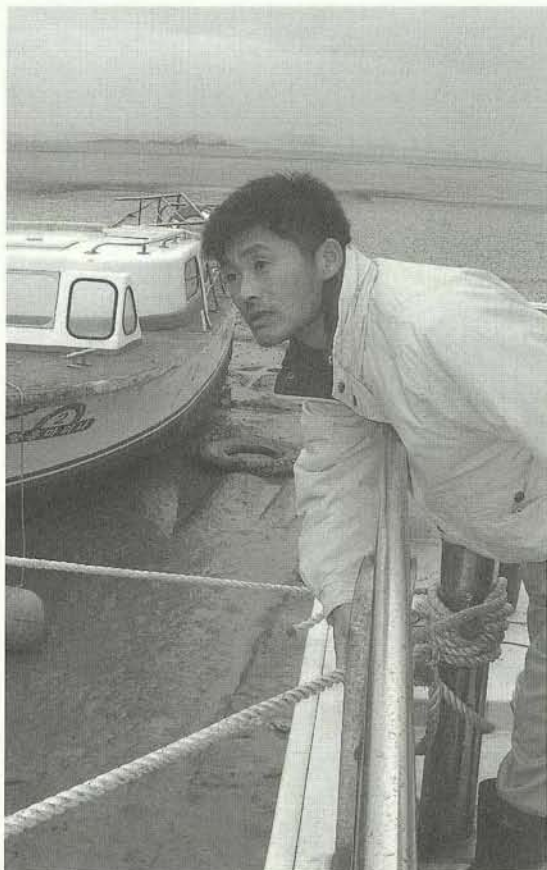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이도에 관한 한 전사처럼 싸워온 그 이지만 부러질 듯 강하기보다는 격식 갖춰 얘기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편안하다는 것이었다. 아마 드넓은 갯벌을 놀이터 삼아 자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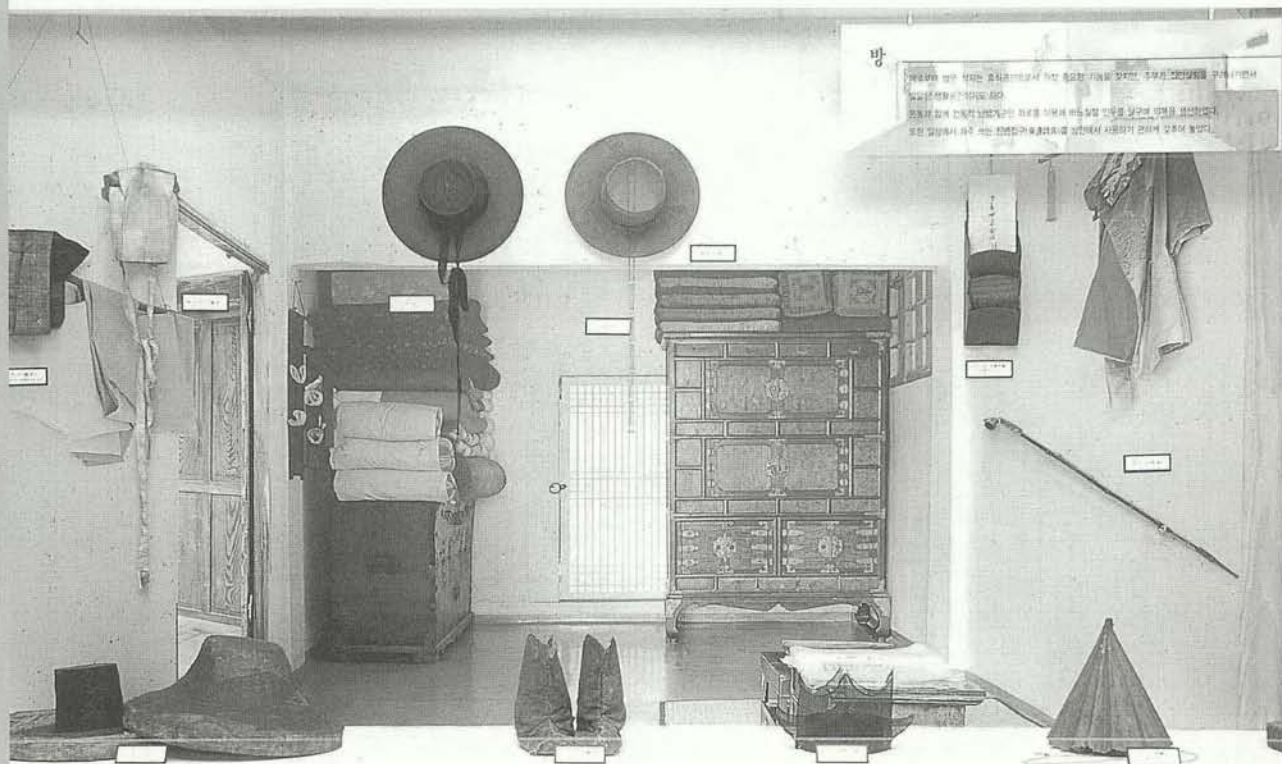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주문에 “수영을 하다가 뒷살막에서 산동성이를 넘어 정상에 서면 연기를 내뿜고 달리던 협궤열차가 생각난다”는 그. 아마 지금이었다면 그 협궤열차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거라며 웃는다. 그에게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다. 예전에 그랬듯이 마을 사람끼리 잡은 조개를 실어 나르는 우마차를 다시 되살려 보고도 싶고, 오이도의 역사를 정리한 마을책도 만들고 싶기도 하다. 또 자식들에게는 낙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갯사람의 후손임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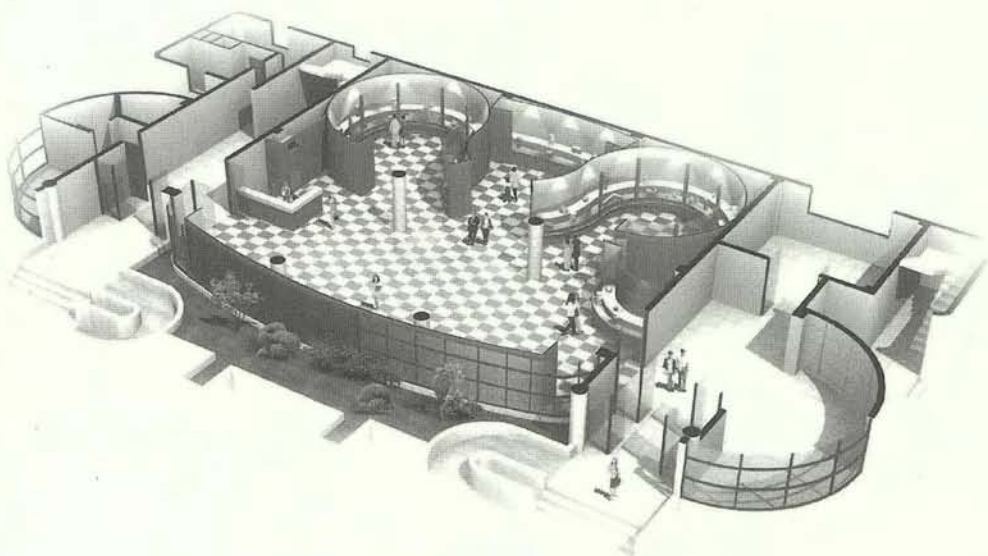
박영홍씨는 오이도를 떠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기에그토록 열심히 싸웠노라고 말한다. 그에게 갯벌은 삶의 전부이며 문화이고 역사이며 후손들의 보금자리인 까닭이다.

신석기 시대 조개패총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들자면 최소한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고장 오이도. 박영홍씨는 자기 후손들이 앞으로 오천년 동안 오이도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곳에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생물의 종이 다양한 축복받은 갯벌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자료전시관 조감도

## 시흥향토사의 편린 ‘모아 More’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연구하고 과거를 밝혀왔다. 과거에는 사진이나 VTR과 같은 뛰어난 기록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돌이나 종이 등에 새겨놓은 그림과 글을 통해 어렵사리 짐작할 뿐이지만 번거로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냈다. 왜 인간은 역사를 되새기는 것일까. 앞날을 위해 정진해도 짧은 생인데 말이다. 언뜻 답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 답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 있다. 가령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게 함으로써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평범한 교육법에서도 우리는 그 이유를 쉬 짐작할 수 있다. 바로 반성을 통한 시행착오의 최소화, 그것이 과거를 되새겨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특히 우리민족에 있어 과거가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침략으로 문화적, 역사적 단절을 여러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끊어진 허리처럼 석연치 않은 민족의 역사를 되살리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잊혀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결코 과거와 다르지 않은 내일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한 연유로 많은 역사적 복원이 이뤄졌고 박물관과 민속촌 등이 세워지게 되었다. 또 각 지역



청자주전자

에서는 문화원을 만들어 향토사료와 각종 유물들을 보존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요성을 일깨우기 힘든 생활 속 깊은 곳의 작은 도구들까지 전시하며 일상속으로 역사의 중요성을 전파시키는 것이다. 시흥시도 시 승격 8년이 되던 1997년 시흥문화원을 개원하고 늦게나마 지역의 다양한 역사자료를 관리, 연구하기 시작했다.

해안과 접해있어 과거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5천년의 한반도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시흥시. 구석기시대의 펜석기, 신석기시대의 조개무지,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백제의 토기, 통일신라 말부터 사용한 청자가마터, 고려 초의 마애상 등 시 전역에서 우리는 역사를 증명하는 다양한 유적을 만나게 된다.

문화원은 지난해 5월 27일 역사자료전시관을 열어 시민들이 이 방대한 세월을 한 곳에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시흥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읽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선사시대



삼국 · 통일신라시대



고려 · 조선시대



근 · 현대



## 시흥시 전체가 거대한 역사관이다



**인**류가 문자를 쓰기 이전인 선사시대에도 시흥시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이도 패총, 조개무지이다. 패총이 역사자료로 중요성을 띠는 것은 바로 석회질 때문이다. 얼마전 파평 윤씨의 복종 태아 미이라가 발견되었을 때 주목을 받은바 있는 석회질은 외부 공기와 미생물 등을 차단해 부패를 막아준다. 때문에 수천년전의 생활도구들이 세월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는 패총 발굴이 중단된 상태지만 서울대 조사팀의 노력으로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석기종류를 출토한 바 있다. 이 유물들이 역사자료전시관의 맨 첫 코스 바로 '선사시대' 관에 전시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를 선사시대라 부른다. 시흥시에서는 앞서 설명한 신석기 시대의 유물 뿐 아니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고인돌도 발견되었다. 조남동에 위치한 이 지석묘에서는 어떠한 유물도 나오지 않았지만 인근 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수백년간 지속되었던 청동기 시대의 문화상 전반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사시대 관람을 마쳤으면 다음은 삼국·통일신라 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삼국시대 초기 시흥시를 차지한 백제는 안현동과 매화동 일대에 백제토기를 남김으로써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서해바다와 인접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소금생산이 가능했던 시흥의 지리적 이점은 백제의 큰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흥은 평야와 낮은 산지 등을 고루 갖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잦은 다툼을 불러왔지만 아쉽게도 고구려나 신라의 유물·유적은 아직 시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시흥시 유적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래산 마애상과 청자백자요지 등은 고려의 것이다. 고려는 한국사에 있어 문화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실력자인 호족들이 힘을 합쳐 세운 나라이니 만큼 유적이 소박하기보다 화려하고 품격이 높다. 높이가 14m에 이르는 소

래산 마애상은 고려초기 호족의 후원으로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부드러운 음각선으로 거대하고 부리부리한 부처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소래산을 찾으면 꼭 한번 감상해볼 유적이다. 전시관에는 방산동 청자·백자 가마터에서 출토된 도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빛깔이 아직도 고매함을 유지하고 있어 경이롭다. 하지만 일부 손상이 많이 된 도기를 보고 있다면 복원이 이뤄져 옛 모습 그대로 관람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근대와 가장 가까운 조선시대의 유적은 그리 많지 않다. 전시된 것도 극소수에 불과한데 조선시대 문신인 강희맹 선생의 신도비 탁본이 조선시대 관 입구에 크게 걸려있다. 강희맹 선생이 시흥시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관곡지 때문이다. 중국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연꽃씨를 가져와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하중동의 관곡지 인데, 이로 인해 강희맹 선생의 호가 '연성'이 되었다. 지역이름도 여기서 따와 연성동으로 지어졌을만큼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근·현대 민속유물은 크게 남자방, 여자방, 부엌, 헛간으로 나누어 각 공간에서 사용되던 생활도구를 사진이나 실물로 전시했다. 실제 시흥에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 시에서 구입한 것과 소장가들의 기증 등으로 모인 물건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부엌에 걸려있는 커다란 무쇠 가마솥, 재래식 화장실의 오물을 퍼낼 때 쓰던 통장군 그리고 방안의 정갈한 목재 가구에 이르기까지 선조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 있는 물건들이 향수처럼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온다.

사실 전시된 것 외에 우리시에서 근대 유물로 가장 주목하는 것은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된 생금집이다. 1913년 개축 당시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가옥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많은 시·군을 분가시킨 시흥시는 정왕·신천·연성권으로 나뉜 다핵화된 도시이고 시화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새롭게 유입된 인구가 많아 애항심이나 정주의식이 매우 낮다. 이는 자연히 역사에 대한 관심의 부재로 이어지기 쉽고 자칫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망각 속에 묻어버리는 우를 범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향토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늦게나마 역사자료전시관을 개관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남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아 내가 살고 있는 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일게다. 아직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시흥이지만 관심을 갖고 둘러본다면 시흥시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장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에 부족하지 않은 다양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부디 가까운 주말에는 흥미로운 곳에서 잠시 눈을 돌려 재미는 부족하지만 시흥시민으로써의 자부심을 찾을 수 있는 시흥문화원으로 발걸음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선사시대-오이도 조개무지



고려·조선시대-소래산 마애상



고려·조선시대-방산동 가마터



근·현대-생금집

## 어린이들을 위한 견학코스



**시** 흥문화원은 역사를 가장 정확히 배워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견학코스를 마련해 안내원의 설명과 더불어 쉽게 시흥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로 예약제로 이뤄지는 문화원 견학은 영상자료 관람, 연와 탁본체험, 역사자료전시관 순으로 진행된다. 생생한 동영상으로 시 전역의 주요 문화유적을 먼저 탐방한 후 조선시대 문신 강희맹 선생이 처음 연꽃을 재배했다는 관곡지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연와탁본체험을 거쳐 역사자료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역사자료전시관에서는 시흥시의 역사를 시대별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자료를 통해 본 유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더욱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

단체견학 문의 : 317-0827

옥터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 시흥문화원 견학기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글/ 양혁기

오늘 친구들과 함께 시흥문화원을 견학했다. 나는 시흥시에 살면서도 시흥시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문화원에 계시는 선생님이 우리가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다.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전의 선사시대 무덤인 고인돌이 시흥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사시대에도 우리 고장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고려, 조선시대 방산동의 청자 백자 가마터와 강희맹 선생님이 중국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연꽃 씨를 가져와 재배하기 시작한 관곡지가 하중동에 있다. 문화원에 계시는 선생님이 탁본실습을 도와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기와 탁본을 하게 되었다. 기와에는 암키와와 수키와가 있는데 여자친구들은 암키와를 탁본하고 나는 남자니까 수키와를 탁본했다. 우리는 1층 전시관에 내려와 삼국통일신라시대 전시실과 고려 조선시대 전시실을 관람하고 바닷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문화 전시관도 관람하였다. 남자의 방, 여자의 방, 부엌, 헛간의 생활모습이 잘 전시되어 있었다. 내가 신기하게 보았던 것은 떡을 할 때 쓰는 떡매였다. 왜냐하면 내가 떡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시흥시에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흥시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개학하면 친구들에게 꼭 한번 시흥문화원을 견학해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 역사 깊은 시흥시 자랑스러워!

글/ 박묘정

나는 역사전시관을 가서 옛날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쓰던 뎨석기를 보았으며, 내가 사는 오이도에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조개무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연꽃이 처음 재배된 관곡지도 있습니다. 우리 시흥에는 청자 백자도 있습니다. 청자는 조금 파란색이고 백자는 흰색입니다. 생금집도 보고 황금닭의 전설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해로와 토로도 봤습니다. 나는 오늘 유적지를 보고 역사 깊은 시흥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 옛문화를 가까운 곳에서 체험하게 돼 기뻐요

글/ 유영웅

나는 오늘 친구들과 우리고장 가까이 있는 옛 문화의 역사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역사자료전시관에는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빗살무늬토기, 뎨석기(빗줄 끝에 매달아 짐승을 잡았다고 한다), 갈판(납작한 돌을 접시 그릇으로 사용), 어망추(아주 옛날에 사용한 낚시추) 등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옛날 지붕 위에 올리는 기와장에도 암키와, 수키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멀리로 가야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옛 문화의 발자취를 우리고장 가까이에서 보게 되어 기쁘다.



## 기와장에도 암컷 수컷이 있어?

글/ 박정준

오늘은 친구들과 시흥문화원을 갔다. 패총을 보러간다고 하였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문화원으로 가기로 했다. 가서 처음에는 비디오를 보았다. 거기에서 옛날 무덤을 보았다. 돌로 된 무덤인데 고인돌이라고 했다. 우리는 비디오를 보고 전시장으로 갔다. 그곳에는 비디오에서 보았던 것이 있었다.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청자와 백자라고 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암키와와 수키와이다. 우리들은 그것을 직접 탁본을 찍었다. 그래서 더 생각이 난다. 재미있었다.



## 오이도에는 정말 많은 조개무덤이 있다

글/ 박노을

시흥문화원의 역사자료전시관을 갔다. 그곳에서 선사시대의 오이도 패총에 대해 배웠다. 오이도 패총에는 조개무덤, 빗살무늬토기가 있는데 천년된 신석기 시대의 패총이 여섯 군데나 있다고 한다. 나의 고향인 오이도에서 조개무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어서 정말 좋다. 시흥에는 옛날 사람들의 오래된 유적지가 많은데 관곡지, 방산동의 청자 백자 가마터, 소래산 마애상, 생금집 등이 있었다. 그리고 기와에도 암키와와 수키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 강희맹의 삶과 문학

(1424 ~ 1483)

安章利(목원대학교 강사)





# 1. 姜希孟의生涯와文學

1. 서론

2. 자식 교육과 가족애

3. 衿陽에 대한 애착

4. 臺閣의 문학

5. 결론

## 1. 서론

姜希孟(1424-1483)이 살았던 조선 전기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한 시대였다. 사상적으로 성리학이 뿌리를 내리는 단계였고 왕조는 기틀이 완비되던 시대였다. 이 시대를 이끌었던 官人들은 時運이 좋아서 훌륭한 시대에 태어나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자부하였다.<sup>1)</sup>

강희맹의 집안은 대대로 영달한 鉅族 집안이었다.<sup>2)</sup> 曾祖父인 著는 門下贊成事를, 祖父인 淮伯은 大司憲을, 아버지인 碩德은 敦寧府知事를 역임하여 4대째 堂上官을 지낸 鉅族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의 어머니는 靑松 沈氏로 世宗妃인 昭憲王后의 동생이기도 했다.

姜希孟은 세종23년(1441) 18세의 나이로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安崇孝의 딸과 혼인하였다. 24살 되던 해에 文科 別試에 乙科 一等으로 합격하여 宗簿 主簿에 제수되었으며, 30세에 예조정랑 32세에 집현전직전 병조좌랑, 35세 예조참의, 42세에 이조참판 43세에 예조참판 예조판서, 세조 예종 성종의 추대에 따라 佐翼功臣 翼戴功臣 佐理功臣에 參與하게 된다. 50세가 되는 成宗4년에는 兵曹判書에 오르고 53세에는 判中樞府事가 되며, 이듬해에는 吏曹判書가 된다. 또한 이 해에는 世子인 燕山이 崇禮門 밖에 있던 그의 집으로 僑居함으로 해서 더욱 세도가 당당해진다. 56세에는 右贊成에 오르고, 58세에는 判義禁府事를 지냈으며, 59세에는 左贊成에 이르렀다.

강희맹은 순탄한 宦路를 걸어온 관인으로 국가적인 편찬사업을 통해 臺閣의 문장을 표출하였다. 성종 5년(1474) 국가의 예를 정리한 《國朝五禮儀》의 서문을 썼으며, 1476년에는 祁順의 《皇華集》에 대한 발문을 썼다. 1478년에는 《東文選》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480년에는 《歷代年表》의 서문과 《春秋四傳》의 발문을 썼다. 이듬해에는 《東國輿地勝覽》 편찬에 관여하였다.

강희맹은 杻陽(지금의 시흥)에 머물면서 농사일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 지역 생활을 바탕으로 《杻陽雜錄》과 같은 農書와 《村談解頤》 같은 滑稽書를 집필하였다. 특히 이들 저술에서는 서민 생활을 체득해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관각문인의 포용성을 엿볼 수 있다.

강희맹은 가정적인 인물이기도 하였다. 일찍이 작은 아버지에게 입적되어 양자로서의 생활을 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식교육을 위해 《訓子五說》을 지었으며 자신보다 먼저 간 어린 자식들과 부인을 잃은 슬픔을 연장체 한시로 읊었다. 《晉山世稿》같은 세고류가 강희맹에게서 시작된 것은 가족과 가문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강희맹의 문학을 앞에서 제시한 개인, 금양인, 관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 2. 자식 교육과 가족애

### 1) 자식 교육

강희맹의 자식교육은 맏아들 龜孫에게 쓴 편지와 〈훈자오설〉에 잘 나타나 있다.<sup>3)</sup>

1) 時運은 시대의 운세로서 조선전기 훈관료들은 문학을 그 시대의 운세와 관련 있는 것이며, 문학의 목표를 그 시대의 운세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세계관을 지녔다.(김성룡 「어말선조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7, 16쪽)

2) 李來鎭 「15세기 後半期의 鉅族과 名族意識」, 『韓國史論3』(서울대 국사학과, 서울대 출판부 1976), 成規은 《齋叢話》卷10, 제38회에서 당대 鉅族의 성씨를 제시하였다.

3) 강희맹, 〈훈자오설〉 《사숙재집》 『한국문집총간』12, 한국민족문화추진회, 1988, 129쪽.

《訓子五說》은 ‘盜子說’ ‘蛇說’ ‘登山說’ ‘三雉說’ ‘溺桶說’ 등 5篇과 序頭 그리고 末尾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두에는 說을 지은 동기가 말미에는 아들에 대한 당부가 실려 있다. 그런데 末尾는 1468년 6월에 아들 龜孫에게 쓴 편지라고 되어 있으며, 〈훈자오설〉은 같은 해 7월에 썼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편지를 써 준 뒤에 〈훈자오설〉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순에 따라 편지의 내용부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살에 양어머니에 의탁되어 12살까지 학문을 모르다가 친아버지가 학문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12살 되던 해(1435년) 2월 省柔스님을 따라가 수업함.
2. 1446년(23세) 겨울 光教山 昌盛寺에서 글을 읽을 때 갈아입을 옷이 적어 옷에 이가 그득했음.
3. 1444년(21세) 여름 衿州山에서 글을 읽을 때 일인당 하루에 한 되 반씩만 먹으며 굶주림을 참고 공부하였음.
4. 1444년 겨울 黃山 舍那寺에서 글을 읽을 때 스님에게 김치를 얻어먹어 굶주림을 견디었음.
5. 1446년 여름 三角山에서 글을 읽을 때 중들의 팔시를 받으면서도 공부하였음.
6. 1447년(24세) 과거에 합격했을 때 議政이었던 南智가 거족 자식이 특히 근신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7. 1445년 蔭鉞의 기회가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음.
8.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친구로 삼았음.
9. 강희맹의 벗인 李克堪이 韓確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예로 들음.(어떤 재상이 무리한을 보좌관으로 삼아 사람들이 이 상하게 여겼다. 무리한이 가벼운 죄를 지었는데 재상은 사형을 시켰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리한이 재상의 첩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었다.)
10. 강희맹의 아버지 姜碩德에게 들은 태종 시대 이야기임.(조정 인사 甲乙이 친했는데 甲이 乙이 아끼는 창녀를 탐내었다. 세 사람이 밤을 보낼 때 甲이 껌을 내어 乙을 자루 속에 넣고 창녀와 즐겼다. 주인아낙이 이를 보고 소문을 내서 乙은 종신토록 밖에 나가지 못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1468년으로 아들 龜孫이 20세 되던 시기이다. 위에 제시된 강희맹의 경험 시기도 대개 20대의 일들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식을 교육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즉 1~8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훈계하는 내용이며, 학업의 자세에 대해서는 1~5에서, 거족 자식으로서의 궁지에 대해서는 7,8에서 거론하였다. 9는 남의 이야기를 통해 훈계하는 내용으로 여색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 20세된 아들에게 자신이 거족의 자손이지만 굶주림과 외로움, 괴로움 등을 견디며 학업을 닦았고 이를 성취한 뒤에도 한층 조심스런 행동을 해야 했음을 교육하고 있다. 이처럼 편지의 내용은 학업에의 정진과 거족으로서의 근신, 그리고 여색 조심 등 강희맹이 자식에게 경계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이 미진하여 다시 〈훈자오설〉을 지은 셈인데 ‘盜子說’과 ‘登山說’은 도덕공명의 이루기 어려움을 ‘蛇說’과 ‘三雉說’은 타락과 방종으로 빠지기 쉬움을 그리고 ‘溺桶說’은 거족 자제의 상황 판단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sup>4)</sup>

이상의 편지와 설을 통해 강희맹이 교육하려 한 내용은 결국 ‘좋은 성과를 이루기 어렵고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데 좋은 집안의 자제는 더욱 그렇다’는 훈계로 요약된다. 그런데 강희맹은 엄한 훈계로 이

4) 내용을 요약하면 ‘盜子說’ - 도둑 아들이 한난 중에 임기응변으로 탈출하여 自得에 이르러 비로소 천하의 도둑이 되었다. 道德功名도 이런 자득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 ‘蛇說’ - 뱀을 꺼리던 마을이 1년간 익숙해지자 모두 즐겨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탐욕과 방탕을 부끄러워하지만 나중에는 망각하게 된다. ‘登山說’ - 날렵하고 용감한 丙이나 온 몸이 건강한 乙 보다 절록이지만 침착한 甲이 결국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德業功名도 포기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아야 이룰 수 있다. ‘三雉說’ - 사냥을 피하는 꿩을 세부류로 나누어 항상 조심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자의 유혹이나 친구의 꾀에 대해서도 늘 조심해야 한다. ‘溺桶說’ - 시장의 오줌통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지 않았다가 방패막이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혼난 자식이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를 지도했던 것 같지는 않다. 가족에 대한 글을 볼 때 嚴父로서의 면모보다는 자상한 아버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면모는 가족에 대한 시에서 잘 형상화되어 있다.

## 2) 가족애

姜希孟은 맏아들 龜孫이 혼인했을 때, 진사시에 합격했을 때도 詩를 읊었으며, 그가 龜孫의 집에 머물 때의 심정을 〈龜孫의 집에 머물면서〉라는 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 사발 얼음물은 瑤瑤처럼 찬데  
창은 비 기운 머금어 옷과 갓을 적신다.  
아이들이 달려 와서 앞 시내가 불었다더니  
고운 생선 낚아 문득 상에 가득

一椀氷漿瑤瑤<sup>5)</sup>寒 窓涵雨氣潤衣冠  
兒童走報南溪漲 打得纖鱗忽滿盤<sup>6)</sup>

起句에서 얼음물이 옥처럼 차다고 하여 선뜻한 추위를 느끼게 하였고, 承句에서는 창과 옷가지의 모습을 통해 창을 통해서 들어온 봄기운이 겨울 동안 얼었던 옷가지까지 녹녹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사발 얼음물로 축소되어 대표된 추위가 방안의 창과 의관을 통해 풀려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轉句에서 봄은 시내의 얼음을 녹이고, 물이 불었다고 재잘거리는 아이들을 통해 봄이 온 소식을 들으며, 結句에 가면, 봄기운을 따라 풀려난 ‘고운 생선’이 상에 올라오는 것을 보임으로써 촉각으로만 느끼던 봄기운이 청각, 시각, 미각에 까지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姜希孟은 자식의 집에서 봄을 맞는 노인의 평온한 모습 특히 아들이 ‘고운 생선’을 바쳐서 흐뭇해진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섬세하게 그렸다.

한편, 강희맹은 35세(世祖10年)에는 어머니를, 36세에는 아버지를, 37세에는 장인을 死別하며, 41세에는 셋째 아들인 麟孫과 형인 希顔을 死別하는 가정적 불행을 겪어야 했다. 姜希孟은 자식이나 부인에 대한 情을 절실하게 다루었는데, 특히 자식이나 부인을 사별했을 때의 슬픔을 절실하게 다루었다. 그는 셋째 아들인 麟孫이 13살의 어린 나이로 죽었을 때, 〈悼子篇〉을 지었다. 이 시는 7수에 序까지 있다.

내가 중국에 使臣으로 가서 험난함을 겪었을 때  
자식은 내 모습이 여위었다고 말했었네.  
자식은 九泉으로 돌아가 나와 死別했으나

5) 瑤瑤石英의 일종으로 색깔이 고와서 장식품으로 쓰인다.

6) 〈寓龜孫第有作七首〉, 《시숙재집》, 앞 책, 14쪽.

나는 자식을 쫓아갈 길이 없네.  
다락집 문 닫고 말없이 우뚝 앉아 있는데  
벼슬길이 어찌 근심 머리를 가라 앉히리.  
아아! 두 번째 노래에도 슬픈 노래가 그치지 않으니  
주위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움 겪네.

老夫朝燕蒙險艱 兒呼老夫毀形顏  
兒歸九泉別老夫 老夫無路能追攀  
兀然閉閣坐無語 終南<sup>7)</sup>安得齊憂端  
嗚呼二謫兮歌未 傍人爲我茹辛酸<sup>8)</sup>

위의 詩는 七言古詩이다. 수함련에서는 공무를 수행한 자신을 위로한 자식과 죽은 자식을 위로하지 못한 자신을 대비하여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경련에서는 政務에 빠져서도 슬픔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심정을 읊었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자신의 슬픔이 두 번째 노래만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하여 다음 노래가 이어짐을 예고했으며, 자신의 슬픔의 정도가 주위 사람들도 괴로워 할 정도라고 하여 그 극진함을 표현했다.

이 시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생긴 격한 감정을 7수에 걸쳐서 표현하였는데, 특히 이 한 수에도, '老夫'라는 말을 네 번이나 쓰고 있어서 '老夫'인 자신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표현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충격은 부인이 죽었을 때도 표현된다. 부인 安氏의 성품은 침착하고 너그러웠으며, 14세에 시집와서 집안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었다고 하였다. 姜希孟 자신이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항상 명철하게 분석해 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sup>9)</sup>

姜希孟은 '壬寅年 겨울에 부인이 죽었으므로 슬픔이 지극하여 五更歌를 지어 안방 벽에 쓴다.'<sup>10)</sup> '歲壬寅冬 夫人歿 고 하고 '初更'에서 '五更'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5수로 노래했다.

初更 人定 소리에 주위는 고요해 졌는데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으니 내내 말뚱말뚱.  
비스듬히 누워 신음하는 파리하게 여윈 몸  
어떻게 이 좁고 긴 밤을 보내려나!

初更人定四壁靜 瞋眼無 眠長耿耿  
坐臥吟呻閣瘦軀 何以度此寒夜永

初更은 일몰시간이다. 통행을 금지하는 인정소리에 주위는 고요한데 홀로 되어 쓸쓸한 希孟의 마음에

7) 終南捷徑'의 준말, 세상에 뜻이 없는 채하고 終南山에 들어가면 세상사람이 경모하여 虛名을 얻으므로 벼슬하는 지름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벼슬'이라는 뜻으로 전환됨.

8) 《悼子篇》, 《사숙재집》, 앞 책, 50쪽.

9) 《夫人安氏行狀》, 《사숙재집》, 앞 책, 93쪽.

10) 歲壬寅冬 夫人歿 傷悼之極 因作五更歌 書諸壁間 (五更歌), 《사숙재집》, 앞 책, 20쪽.

는 더욱 더 조용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늙은 몸이 잠을 청해도 오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다고 하였다. 起句는 주변 상황을, 承句는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轉句는 몸이 불편한 상황을 그려서 結句에 이르면 잠 못 이루어 더욱 '출고 긴 밤'의 무거운 중량감을 느끼게 한다. 二更에서는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술로서 잠을 청해도 오히려 만가지 상념이 뒤엉켜서 얼음과 솟이 엉킨 것 같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子時인 三更에 이르면 잠을 포기하고 창밖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四更에 이르면 끝날 줄 모르는 근심을 원망했다.

五更에 닭이 우니 종소리를 뒤쫓는데  
일어나 이불을 안고 앉아서 날을 새네,  
아침이라 愁心을 떨쳐 버릴 것이로되  
愁心은 어둔 밤처럼 여전하여 더욱 더 캄캄하네.

五更鷄鷄叫鍾聲 起擁衾稠坐達明  
不是朝來愁便去 愁仍夜暗倍冥冥

五更은 새벽시간이다. 잠 못 이룬 밤이지만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 아침이 되었다. 그러나 아내 잃은 강희맹에게는 여전히 밤처럼 어둡게만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 시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되어도 밤처럼 느껴지는 작가의 슬픔을 읊어서 아내에 대한 극진한 情을 표현하고 있다.

### 3. 衿陽에 대한 애착

#### 1) 《衿陽雜錄》

姜希孟이 衿陽에 내려가게 된 경위와 衿陽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들 龜孫이 쓴 《衿陽雜錄跋》에 잘 드러난다.

“衿陽의 別業은 내 외 증조부로 贊成을 역임하신 靖肅安公<sup>11)</sup>께서 시작하셨다. 靖肅公이 그의 아버지인 興寧 府院君의 葬地를 衿州山 서쪽 기슭에 모시고, 廬幕을 지은 것이 집이 되었다. 관직을 내놓고 이곳에 물러나 있으면서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만 매번 나가 자문에 응하셨다. 靖肅公이 돌아가심에 나의 외조부 觀察公<sup>12)</sup>에게 전해지고 드디어 돌아가신 아버지(필자주:姜希孟)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어찌 玉을 사랑하는 자가 ‘越鄉의 능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준 것이 아니겠는가? 靖肅公의 가문은 번창했으나 產業에는 힘쓰지 않아서 밭은 불과 百이량이고, 그나마 땅도 기름지지 않아 농사를 지어도

11) 靖肅安公姜希孟의 妻祖父인 安純(1371~1440)을 말함. 자는 顯之, 호는 竹溪, 興寧府院君 安景恭의 아들임. 1388년 司馬試에 합격하고 右代言, 史曹參議, 戶曹參判, 判中樞院事 등을 거쳐 1435년 議政府 贊成事에 오른 《謹齋集》의 부록으로 遺稿가 실려 있다.

12) 觀察公姜希孟의 장인인 安崇孝(?~1460)를 가리킴. 安崇孝의 자는 孝忠, 호는 寒柏堂, 安純의 아들, 蔭補로 掌令, 戶曹參議, 京畿道觀察使, 大司憲 등을 거쳤음.

13) “衿陽別業 我外曾祖贊成靖肅安公所闢也. 靖肅葬皇考興寧府院君於衿州山西支 因廬爲家仍寧致仕退居于此 國之大事每見就問 及其歿也傳之我外祖 觀察公而遂及我先君 是豈非愛玉者必擇越鄉之力而授之耶 靖肅門閥之盛稱美一時而不事產業 田不過百畝而土且不肥農無餘粟但以舊業松楸桑梓不爲樵斧所害 此所謂萬松岡也 先君於公退之暇黃冠野服往來逍遙 與村翁談農 凡播種耕之方早晚 燥濕之宜靡不燭其理而究其妙 又採農謠制爲歌詞 其服田力穡歲勤勩之苦 極其形容而盡其意(姜龜孫, 《衿陽雜錄跋》, 《사숙재집》, 앞 책 154쪽.)

여유가 없었다. 다만 전해오는 舊業은 소나무, 뽕나무, 자작나무들을 기르는 것으로 나무꾼들이 बे지 못하도록 관리함으로써 ‘萬松岡’이 되었다. 아버님께서는 공무에서 벗어나는 틈틈이 간편한 차림을 하고 다니면서 村老들과 농사에 대해 의논하셨다. 무릇 播種이나 갈고 김매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건조하거나 습한 땅에 알맞는 농법 등 그 이치와 묘방을 밝히지 않음이 없으셨다. 또 農謠를 채집하여 가사를 지었는데 힘을 다해 부지런히 농사짓고도 해가 다하도록 근근이 살아가는 농부의 괴로운 모습을 잘 형용하셨다.”<sup>14)</sup>

위 인용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부분에서는 姜希孟이 衿陽農場을 맡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姜希孟의 衿陽에서의 생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姜希孟의 장인인 安崇孝에게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sup>15)</sup> 딸에게 상속된 것은 농사와 식물재배에 관심이 있는 姜希孟의 영향이 있었던 듯하다. 그렇다고 衿陽農場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公務에서 여가 있을 때마다 틈틈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농부들과 어울리면서 농사에 대해 의논하고 農謠를 채집할 정도로 당시 사대부로서는 파격적으로 적극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姜希孟이 農事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시대적 상황과 가문적 영향, 그리고 姜希孟의 성격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전기는 여러 부분의 문물이 정비되던 시기로 농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世宗은 즉위 10년(1428)의 4월과 7월 2次에 걸쳐 三南의 老農에게 우리 風土에 맞는 農法을 進達하도록 했고, 그 내용을 엮어서 최초의 官撰農書인《農事直說》<sup>16)</sup>을 편찬하게 했다. 이 책의 반포는 이제까지 中國의 農書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한 방법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姜希孟이《衿陽雜錄》을 엮게 하는데 일단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姜希孟은 어려서부터 식물 기르는 일을 좋아했다고 하는데<sup>17)</sup>《農桑輯要》를 옮겨 쓴 曾祖父 姜蕃와《養花小錄》을 쓴 兄 姜希顔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姜希孟에게 妻家에서 얻은 衿陽農場은 채소 재배의 취미를 기를 수 있는 좋은 試驗場이 되었다.

《衿陽雜錄》의 내용을 보면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農家一〉에서는 農事에 대한 諸家の 說을 모았고, 이어서 80가지의 穀物을 소개했다.〈農談二〉에서는 農政의 그릇됨에 대해 언급했다.〈農者對三〉에서는 農事와 벼슬하는 일을 대비하여 농사가 더 힘들음을 주장했다.〈諸風辨四〉에서는 바람이 비에 못지않게 농작물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바람과 중국 바람과의 차이도 논했다.〈種穀宜五〉에서는 地質에 따른 播種時期의 차이를 논했다.〈選農謠〉는 제6부분으로 해가 질 때까지 農事에 힘쓰는 農夫의 農謠를 뽑았으며, 뒤에 해설을 붙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외에도 民譚을 채집한《촌담해이》가 衿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選農謠》<sup>17)</sup>는 농요를 뽑은 것인데《東文選》과 許筠의《國朝詩冊》에 選定되기도 했다.《東文選》에서는 이 노래를‘雜體詩’로 분류했는데 이는 姜希孟이 농요의 漢詩化보다는 우리나라 農謠 자체의 맛을 살리는 방향으로 漢譯했기 때문이다. 許筠은 이 노래를 姜希孟의 詩中 가장 秀作이라고 평가했다. 姜希孟은《選農謠》에서 실린 해설 全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安崇孝에게는 謙 訥 該 등 세 아들과 姜希孟 夫人을 포함한 두 딸이 있었다.

15) 《農事直說》은 世宗11年(1429)에 總制 鄭弘 등에 의하여 편찬된 한국 최초의 官撰農書임.

16) ‘老夫早學圃 要充黎藿腸’ (《園圃圖》, 《사속재집》, 앞 책 5쪽.)

17) ‘農謠14章’을《選農謠》라고 한 것은 農謠에서 수집 선택한 면을 부각시킨 것으로《東文選》이나 本考가 대상으로 한《私淑齋集》이 모두 이 제목을 갖고 있다.《私淑齋集》의《選農謠》는 許筠의 批評이 실려 있어서《國朝詩冊》의 내용을 옮긴 듯 한데《國朝詩冊》에서는《農謠》라는 제목 하에 실려 있다.

右農謳14章은 雲松居士 姜景醇(필자주:希孟의 字)이 지은 것이다. 衿陽弊業에 살면서 자주 그 사이를 왕래하여 樹藝種植을 친히 시험하지 않음이 없더니 조금씩 농사일도 알게 되었다. 農謳를 들었는데 이른바 그 呼應하는 소리가 悲壯하여 里巷의 노래 소리와는 곡조가 같지 않았다. 그중에서 ‘捲露’·‘迎陽’等 曲은 歌詞가 없었다. 이는 필시 어떤 隱逸之士가 밭고랑에서 살면서 즐거워하여 근심을 잊고 曲調를 발하여 저 농사지어 食祿을 대신하는 뜻을 붙였을 것이다.<sup>18)</sup> 그러나 농부들이 무지하여 그 가사는 잊어버리고 다만 곡조에 의하여 다른 노래에 섞여졌을 것이다.

이제, 곡명이 있는 것을 채집하고, 또 내 임의대로 곡명을 撰하여 그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 곡명에 의하여 가사를 만들어 각각 아래에 붙였다. 연후에 農家의 始末이 대략 갖추어지니 무릇 14章이다. 먼저 ‘雨陽若’에서는 한 해의 풍흉이 비와 햇볕에 달려 있으며, 아름다움을 임금에게 돌리니 신하된 자의 뜻이다. 다음의 ‘捲露’에서는 농가에서 매일 밤에 나갈 때 새벽이슬을 맞는 것이 반드시 하루일 중 가장 먼저라는 뜻을 나타냈다. 다음의 ‘迎陽’에서는 밤에 이슬에 젖고 아침이면 떠오르는 햇살을 맞아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말했다. 다음의 ‘提鋤’에서는 농가에서 힘써 할 일이 오로지 호미질에 달렸으므로 잠시만 쉬어도 마침내 잡초가 우거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의 ‘討草’에서는 여름에 잡초가 무성하여 곡식을 해치므로 농가에서는 마땅히 살피어 호미질을 한 후에 잡초 제거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다음의 ‘誇農’에서는 士, 農, 工, 商 중 오직 농사가 가장 괴로우니 진실로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어찌 근본이 이에 있음을 알 수 있겠는가 하면서 가사의 뜻을 음미한다면 商人도 조금은 반성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의 ‘相勸’에서는 사람들이 근면을 꺼리고 편안함을 즐겨 혹 게으르게 되기 쉬우므로 서로 권하여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의 ‘待’에서는 하루 가운데 만나절을 일하면서(시장하므로) 점심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의 ‘鼓腹’에서는 일단 배부른 뒤에는 배고픔을 잊고 다시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의 ‘望秋’에서는 보리가 다 익어 공뿔함을 면하므로 배불리 먹은 뒤, 돌아오는 가을을 바라보는 인지상정을 말했다. 다음의 ‘寬長畝’에서는 어른과 아이가 서로 경쟁하다시피 일하면서 권태를 잊어버리는 농가의 모습을 말했다. 다음의 ‘水鳴’에서는 점심을 마련하는 사람이 항상 술을 내오되 비오리 우는 소리로 때를 맞추고 또 늦비오리가 올면 역시 술을 내온다고 했다. 다음의 ‘日啣山’은 김을 다 맨 뒤 집으로 돌아갈 때 노래부르며 천천히 돌아감을 말했다. 끝으로 ‘濯足’에서는 농가에서 하는 일이 하루 또 하루 조금도 틈이 없이 언제나 바쁘고 고생스러움을 알 수 있게 했다. 이에 이르러 농가의 일이 갖추어졌다. ‘雨陽時若’에서 ‘待’까지는 慢調로 정하여 점심 식사 전 만나절에 사용하고 ‘鼓腹’에서 ‘濯足’까지는 促調로 정하여 점심 식사 후 만나절에 사용하니, 慢調에서 促調로 이르게 됨은 악조의 체제가 그러하다. 그 節奏의 長短은 따로 譜法을 만들었으니 왼쪽과 같다. (필자주:譜法은 현재 전하지 않음) 그 慢調의 화답하는 소리 ‘시응아지리’(屎應阿地利)라고 하는 것은 村中の 사람들이 서로 부를 때 반드시 형·아우를 칭하는 것이니 친근히 여기는 뜻이다. 신라의 노래는 끝에 반드시 ‘다롱다리 호지리다리’(多農多利乎地利多利)라 하는데 그 ‘利’를 말하는 것은 ‘農’을 사랑하는 말이다. 그 促調의 화답하는 소리 ‘확자고로롱’(確者古老農)이라 하는 것은 理事를 상의하여 확정하고, 살피지 지혜를 쓰는 자는 오직 옛 늙은 농부 뿐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噴이라는 것은 노래 끝에는 반드시 ‘두루롱(頭屢農)하고 空氣를 토하며 입술을 떨어 그 소리남을 돕는 것이다. 우선 대강을 기록하여 博雅君子를 기다려 이를 바루고자 한다.<sup>19)</sup>

18) ‘好是稼穡 力民代食’(《詩經》,《大雅》,《秉彙》)

19) 右農謳十四章 雲松居士姜景醇之所作也. 居有衿陽弊業數往來其間樹藝種植靡不親試之 稍知稼穡之事 聞農謳有所謂呼應者其聲悲壯不與里巷之歌同調 其中有捲露迎陽等曲而無其詞 是必隱逸之士棲身畝樂以忘憂發爲曲調以寓夫力民代食之意而田促無知忘失其詞而但依韻聯雜用他歌耳 今採曲名之存者 又以己意撰爲曲名以補其闕 依名制詞 名附其下然後農之終始本末略具凡十四章 首之以雨陽若者 一歲之豐凶係乎雨陽之時若 歸美於上 臣民之意也 次之以捲露者 農家日往南畝必犯曉露 一日之中首見者此也 次之以迎陽者 夜承滋露 朝迎旭日嘉穀之生不覺其長也 次之以提鋤者 農家之務全在提鋤 一暫止息終至荒穢 次之以討草者之害稼 農家之所當雷提鋤之後務專在是也 次之以誇農者 四民之中唯農最苦非心誠好之安知本之在是歟 玩舊詞意則 遂末者亦可小省矣 次之以相勸者 人情厭勞樂逸或至於怠惰 交相勸勉勤之至也 次之以待者 一日之中

이 글은 姜希孟이 農謠를 재집하게 된 경위를 적고 내용을 소개했으며 후렴에 대한 해설까지 첨가했다. 내용을 볼 때 여름 김매기 때의 농부의 고된 하루일과를 순차적으로 읊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루의 과정이 14장의 노래로 배열되는 양상이나 慢調와 促調의 배열 등은 노래 자체적 특성이기 보다 의도적으로 완전성을 이루려는 인위적 결과물로 여겨진다. 강희맹은 하루의 농사일에서도 내용상에 있어서나 곡조상에 있어서 天理流行의 완전함을 보이려고 하였다. 이렇게 목적론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로서는 드물게 체험적 요소가 엿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밭을 씻으며(濯足)〉

밭을 씻어도 마음껏 씻을 수가 없구나.  
집에 돌아와 눈감았더니 새벽닭 벌써 울고  
새벽닭 울음소리에 호미 쥐고 밭일가니  
열두 때 하루종일 어느 때나 다리떨까.  
여름 밤은 짧고 짧으니 몇 시간 쉴 수 있나  
밭을 씻어도 마음껏 씻을 수가 없구나.

濯足不用十分濯  
還家眼鷄 鷄鋤還握  
十二時何時可伸脚  
夏夜短休幾刻  
濯足不用十分濯

제14수이다. 農事에 바빠서 밭도 제대로 못 씻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밭을 못씻는 이유는 잘 씻기지 않을 정도로 밭에 흙이 짙어 있기 때문이며, 짧은 여름밤 밭을 깨끗이 씻으려면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야 할 정도로 바쁘기 때문이다. 여름 농부들의 바쁜 상황을 밭씻기라는 소재로 표현한 것은 농부의 일상을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이 노래에서는 길고 짧은 시행을 한 작품 안에 함께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농요가 가창으로 구연되기 때문에 동일한 장단 안에서 다른 음절로 구성된 가사의 특성을 한시화한 것이다.<sup>20)</sup> 한편 이 노래에 후렴구를 넣은 것도 농요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 후렴구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즉 “다롱다리 호지리다리”(多農多利乎地利多利)라 하는데 그 「利」를 말하는 것은 「農」을 자랑하는 말이다”. 등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게다가 漢字일리 없는 후렴구를 漢文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대부의 현학적 성격을 반영한다.

이처럼 〈선농구〉에는 한문을 일상적으로 쓰는 관료의 對民意識 특히 勸農意識이 투영되어 있지만 관료로서 체득하기 어려운 농부의 일상과 당대 農謠를 체험적으로 기술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役幾半而亦可進也 次之以鼓腹者 一飽之後至於忘飢則力亦可伸也 次之以望秋者 來牟已熟不至空乏 鼓腹之後旋望有秋人情之常也 次之以竟長畝者 大小爭能而忘倦 農家之態然也 次之以水鳴者 者進酒常以水爲節 晚間鳴鳴則酒亦可進也 次以日啣山者 罷耘之後 優遊歸之之意也 終之以濯足者 農家之事日復一日無有少隙 辛勤苦之可見也 至此而農家之事備矣 自雨暘時若 至待定爲慢調用之於前半日 自鼓腹至濯足定爲促調用之於後半日 由慢而及促樂調之體然也 其長短節奏別爲譜法如左 其慢調和辭之屎應阿地利者 村中之人文相呼喚必稱兄弟者親之之辭也 新羅曲終必多農多利乎地利多利也 其稱利者譽農之辭也 其促調和辭之確者古老農者確事理審而有智者唯古之老農也 所謂真者 歌終必吐氣振唇頭履農助其聲勢也 姑存大概以坡博雅君子正焉 〈選農謠〉, 《사속재집》, 앞 책, 152쪽.)

20) 유재일, 「사속재의 농구십사장에 대한 작품연구」, 『한국 한시의 탐구』, 이희, 2003, 268쪽

## 2) 《村談解頤》

《촌담해이》는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처럼 문물의 정비에 따른 국가의 안정과 사대부의 안정 그리고 이 안정에서 생긴 退居文人의 閑暇함에서 제작된 골계서이다.<sup>21)</sup> 일찍이 弘文館 등의 기관을 통해 文友關係가 신장되면서 동료들과 나누었던 ‘우스운 이야기’를 벼슬에서 물러난 한가한 틈을 타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대부의 한담에 대한 강희맹의 관심은 《태평한화골계전》에 대한 서문과 아들에게 준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촌담해이》는 공간적 연원이 다르다.

“《村談解頤》는 無爲자가 지었다. 居士(姜希孟 자신)가 한가히 지내며 촌 늙은이와 농담했었는데 그 말 가운데 웃을 만한 것을 채집하여 책을 만들었다.”<sup>22)</sup>

여기서 한가히 지냈다는 촌은 금양을 말한다. 이 책은 여러 板本이 있어서 매우 유행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23)</sup> 대부분은 판본은 宋世琳의 《禦眠樞》과 함께 실려 있는데 보통 네 편의 이야기만 실려 전한다. 그런데 自序를 보면 적어도 9편이 있었던 듯하다.

“...진실로 ‘牧丹’의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안으로 여색에 빠짐이 없어 부부의 윤리가 바르게 될 것이요, ‘癡奴’의 거짓을 통달한다면 집안이 어지러워지지 않고 상하의 분수가 정해질 것이요, ‘狂奴’가 중매를 하는 것에서 주인을 보좌하는 충성이 얻어질 것이요, ‘두더쥐’가 혼인을 꾀한 것에서 安危의 분수가 드러날 것이요, 어린이를 다름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 ‘沙彌’가 감을 훔쳐 먹는 것을 어찌 원망할 것인가? ‘洪善’이 망령되게 ‘天帽’를 얻는 것과 ‘致義’가 헛되이 두 마리 사슴을 쫓는 것과 ‘慧能’이 ‘烟花’에게 목을 매이는 것 등이 모두 해괴한 풍속이 거울이 된다.”<sup>24)</sup>

이 9편은 각각 〈牧丹之詐〉, 〈癡奴之僞〉, 〈狂奴行媒〉, 〈鼯鼠圖婚〉, 〈沙彌偷柿〉, 〈狡兔決訟〉, 〈洪善天帽〉, 〈致義逐鹿〉, 〈慧能係頸〉 등으로 이름 붙일 수 있겠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牧丹之詐〉, 〈癡奴之僞〉, 〈沙彌偷柿〉, 〈慧能係頸〉 등은 각각 〈牧丹奪財〉, 〈癡奴護妾〉, 〈舊父毒果〉, 〈繫頸住持〉 등의 이름으로 남고 나머지 이야기들 중에는 〈鼯鼠圖婚〉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sup>25)</sup>

이들 이야기 중에 〈牧丹奪財〉 〈繫頸住持〉 등은 여색을 경계한 내용으로 사대부들 간에나 회자될 내용이지만 〈舊父毒果〉나 〈鼠圖婚〉 등은 흔히 구전되는 설화로 촌민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볼 때 《촌담해이》가 村民이건 사대부건 衿陽에서 얻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채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 臺閣의 문학

21) 居正이 嘗謝事居閑하야 遊處於墨壘한새 乃書朋友에 所當談者하야 曰滑稽傳이라(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序》, 《古今笑叢》(全), 민속자료간행회 1958.) 이 시대 골계전의 응성에 대해서는 姜在哲의 「成宗朝 稗官小說의 隆盛動因 研究」(『漢文學論集』 第3輯, 檀大 漢文學會, 1985.) 참조.

22) 《村談解頤》 無爲子自著也 居士居閑與村翁戲談 採其言可解者 筆之於書(《村談解頤》, 《村談解頤》, 精神文化研究院 소장본, 1941(?))

23) 《村談解頤》의 異本으로 8종류를 찾을 수 있었다. 제목이 《村談解頤》인 것과 《古今笑叢》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 《村談解頤》: 精神文化研究院本 寫本1冊, 1941(?). 奎章閣本(기림문고), 寫本1冊, 延世大本, 東國大本, 油印1冊, 1900. 高麗大本, 寫本1冊, 慶熙大本, 寫本1冊. 2. 《韓語古今笑叢》中, 正音社, 鉛活字, 1947. 《古今笑叢》中, 민속학자료간행회, 등사본, 1958.

24) 苟能辨牧丹之詐則內無色荒而夫婦之倫正矣 察癡奴之僞則家無亂政而上下之分定矣 狂奴行媒輔主之忠得矣 鼠圖隨安危之分著矣 撫失恩則何怪乎沙彌之偷柿 愛恩不報則奚怨乎狡兔之決訟 以至洪善之妄信天帽 致義之虛逐雙鹿 慧能之係頸烟花 皆駭俗之殷鑑也(《村談解頤

臺閣의 문학은 文翰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임금의 詔書를 비롯한 公領文을 짓고, 국가적 편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강희맹은 국가적 편찬사업 중에 전범이 되는 중국고전을 간행하고, 중국의 의례를 준거로 조선에 맞는 의례를 제정하고, 중국에 대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선양하는 일에 참여하였으며, 〈춘추사전발〉, 〈황화집발〉, 〈국조오례의서〉, 〈경국대전〉,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등이 대표적이다.

강희맹은 〈춘추〉에 대해 왕의 말을 인용하여 “오랜 세대 제왕들의 법도와 萬世의 척도가 들어있다고 하였다.”<sup>26)</sup> 이는 한자공동문화권에서 중국의 역사가 곧 우리 역사의 전범이 됨을 천명한 말이다. 〈춘추사전〉은 본래 五家로 이루어진 春秋傳 중에 네 명만을 추려서 시대순으로 재배열한 책이다. 이는 中國史를 조선의 전범으로 삼되 조선에 맞춰 조정하려는 인식을 나타낸다.

〈국조오례의〉나 〈경국대전〉은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실정에 맞추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조오례의〉에서의 간행과정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종이 집현전에 〈오례의〉를 제정하도록 명하여 〈杜氏通典〉 〈洪武禮制〉 〈東國古今詳定禮〉 등의 서적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나 세종의 승하로 완성하지 못함.
2. 세조는 세종의 〈오례의〉를 고금사적과 고증하여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뒤 〈경국대전〉 禮典의 끝에 붙이게 하였으나 세조의 승하로 탈고 못함.
3. 예종과 성종대를 거쳐 〈경국대전〉이 완성(1471)된 뒤 강희맹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편찬하게 하고 신숙주에게 총괄 감수하게 하여 성종5년(1474)에 간행됨.

이로 볼 때 조선초 국가편찬 서적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금 사적을 참조하여 여러 왕조를 거쳐 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전범을 받아들이되 오랜 기간이 걸치더라도 우리에게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祁聖華集跋〉에서도 당대를 “천하가 문명의 운을 맞아 위대한 영웅들을 사절로 보내어 국가의 성대함을 구가하는” 시대로 규정하고 중국 사신들이 “사물과 접촉하여 회포가 일어날 때마다 시를 지었는데 그 문은 모든 묘리를 다 함유하였고 그 시는 七步詩보다도 더 신기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중국사신의 문장은 당대 문사들의 전범이 되었다고 한다. 사실 이 나라에 오는 사신의 수준이 높지 않았고 후대에 신랄한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평가는 외교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조선 원접사에 대한 중국사신의 태도이다. 즉 처음에는 문화이류국에 온다는 오만함으로 무시하던 중국사신이 원접사의 시문을 보고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는 점이다.<sup>27)</sup>

序), 《松嶽雜記》精神文化研究院本, 寫本1冊, 1941(?)

25) 들귀가 보다 나은 가문이 결연하려고 天 雲 風 등에 두루 청혼했으나 결국 자기 동족이 가장 나음을 깨달는다는 내용으로 〈於于野談〉 〈旬五志〉 등에 전한다. (장용수, 「사숙재 강희맹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164쪽.)

26) 강희맹, 〈춘추사전발〉, 《사숙재집》, 앞 책, 138쪽.

27) 서거정이 원접사로 나갔을 때 중국사신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서거정의 시를 본 뒤 탄복하고 인정하였다고 한다. (안정리, 「조선전기 황화집 및 명사신의 조선관련서적 출판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107, 2001)

《동문선》과 《동국여지승람》은 이렇게 중국과 대비되는 조선 문장의 독자성을 자랑하기 위해 출판되었다. 서거정은 《동문선》서문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황제의 명나라가 통일함에 光岳의 기운이 완전하여 우리 국가에서도 여러 聖君이 서로 이어 함양하기 백년동안에 나온 인물들은, 위대하고 精隨하여 문장을 지움에 있어 뛰어난이 예전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東方의 문이 宋元의 문도 아니고 또 漢唐의 문도 아니며 바로 우리나라의 문인 것입니다. 마땅히 중국 역대의 문과 나란히 천지간에 행할 것이거늘 어찌 민멸하여 전함이 없겠습니까?”<sup>28)</sup>

광악의 기운은 ‘우주에 충만한 기운’ 정도의 뜻으로 이 글에서는 성군을 만나 세상이 온전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온전한 세상에서 나온 東方의 文, 즉 우리나라 문장은 중국의 문과 대등하다고 하였다.<sup>29)</sup> 성군을 만나면 세상이 온전해 진다는 관념은 당대의 보편적 관념이었다. 《동국여지승람》에서의 ‘세상’은 ‘조선의 국토’이다. 조선 국토의 완전함은 바로 ‘아름다운 경관’이기도 하다.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한 서거정은 각 지역별로 제영조를 두어 지역을 칭송한 제영시를 실으면서 이는 王化를 칭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에 본래 제영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지역의 제영시를 지어서 제영조를 채웠다. 《동국여지승람》제영조에 승경을 노래한 팔경시가 풍부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다.<sup>30)</sup> 강희맹은 《楮島十詠》, 《漢都十詠》, 《淡淡亭十二詠》, 《淸安八景》, 《湖南形勝十一絕》 등 많은 팔경시를 창작하였는데 이는 바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족함 없는 대각문인의 포용성과 흥취가 담겨 있다.

북풍이 땅을 휩쓸어 온갖 소리 울리는데,  
강 머리의 눈 조각 손바닥보다 더 크네.  
망망한 은세계엔 인적을 볼 수 없는데,  
玉山은 허공중에 기대서서 천만 길 높았어라.  
이때 내가 나귀 타고 가니 모자가 집 같고  
은꽃에 눈은 어쩔하고 머리털은 대처럼 곤두선다.  
돌아오다 靑樓에서 술사서 마시고,  
취한 뒤 매화등걸 찾아가서 봄소식 찾아보자

北風捲地萬籟響 江頭雪片大於掌  
茫茫銀界無人蹤 玉山倚空千萬丈  
我時騎驢帽如屋 銀花眩髮鬢豎竹  
歸來沽酒靑樓飲 醉傍寒梅訪消息

28) “皇明混一 光岳氣全 我國家 列聖相承 涵養百年 人物生於其間 磅礴精粹 作爲文章 動濤發越者 亦無讓於古 是則我東方之文 非宋元之文 亦非漢唐之文 而乃我國之文也 宜與歷代之文 並行於天地間 胡可泯焉而無傳也哉奈何”(서거정, 〈동문선서〉 《동문선》)

29) 김성룡, 앞 책, 44쪽.

30)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강 머리에 바람 세차니 마른 나뭇잎 소리 내는데,  
 얼은 구름은 땅에 붙어 손바닥처럼 평평하다.  
 잠시간에 눈 되어 바다를 덮어 오니,  
 언덕에 평평하게 골짜기 가득 차서 한 길이나 깊어졌네.  
 언덕에 의지한 어부집 여덟 아홉집에  
 술집 푸른 깃발 대 끝에 휘날리니,  
 삼백 냥 靑銅錢 가지고서,  
 바로 술청으로 나아가서 이내 몸 쉬어보리.

江頭風絮枯葉響 凍雲撲地平如掌  
 須臾釀雪駕海來 崖平谷滿深一丈  
 傍岸漁家八九屋 誇酒靑帘數竿竹  
 好將三百靑銅錢 直就壚頭聊休息

《한도십영》 중의 〈楊花踏雪〉이다. 서거정의 작품에 강희맹이 차운했는데 앞 작품이 서거정의 작품이다. 양화는 양화도로 현재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 나루이다. 조선시대 조운의 요지였는데 조선전기에는 겨울 강가풍경이 볼만했던 듯하다.

서거정은 양화도에 겨울이 오니 북풍이 몰아치고 손바닥만한 눈이 내리며 눈산이 우뚝 솟는 등 황량한 날씨에 인적도 없으며, 이를 지나는 자신의 모자에 눈이 집처럼 쌓이고 추워서 머리가 삐죽삐죽 솟는다고 하였다. 일견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의 세계를 그린 듯하다. 그러나 尾聯에서는 그저 청루에서 술마시고 봄소식을 찾는다고 하였다. 겨울이라는 엄청난 적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사계를 운영하는 자연의 운행에서 보면 그저 과정의 일부이며 광악 기운의 현시로 아름다운 경관이 된다.

강희맹은 서거정처럼 눈오는 겨울을 노래하되 겨울바다가 눈으로 덮여있다고 했다. 이는 뒤의 어부집과 연관되어 어부의 생계터전이 단절된 양상으로 읽힌다. 어부는 강에 나가 고기를 낚아야 하는데 언 바다와 눈보라는 그런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계터전을 잃고 궁핍해 하는 어부가 그려져야 할텐데 그 중에 술집이 있다고 하고 그 술집에서 놀고 싶다고 했다.

서거정은 봄소식을 찾아야 봄이 온다고 생각했다면 강희맹은 봄이 올 것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므로 그저 술이나 마시면서 놀면 된다는 생각이다. 천리유행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천리유행에 대한 믿음에서 대각의 문인들이 성군을 만나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믿음, 그런 세상에 서 자기의 포부를 펴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강희맹의 면모를 개인, 지역민 또는 중앙관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특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강희맹은 훈가문 출신으로 세상과 별다른 갈등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文史를 겸비한 조선 사대부들이 그렇듯이 강희맹은 삶의 궤적을 글로 남겨왔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문학이 삶이고 삶이 문학이었던 셈이다. 강희맹은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관료로서 왕을 대신해서 王命을 출납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국가적 편찬사업에 관여하여 國威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개인으로서 가족간의 애환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조선 전기 훈가관료의 일반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강희맹의 특징은 衿陽 지역민으로서의 삶과 자식 교육에 있다. 농장을 지닌 농장주로서 당대 勳舊文臣들과 달리 직접 농사에 관여하여 조선에 맞는 농법을 찾았고 이를 토대로 《금양잡록》을 저술하였다. 〈선농구〉나 〈춘담해이〉처럼 衿陽에 구전되는 구비문학을 채집 정리한 것은 현장성이 증시되는 구비문학 연구의 선행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20대가 된 자식에게 편지를 통해서 학업의 정진과 여색의 경계에 대해 주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를 다시 〈훈자오설〉 같은 글로 쓰는 양상은 현행 교육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기득권을 가진 자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강희맹은 자신이 지닌 훈가관료로서의 지위와 금양농장을 대대로 유지하기 위해 자식을 교육하고 농법을 개발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훈자오설〉과 《금양잡록》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같은 시대의 다른 文人들에게서 볼 수 없는 강희맹만의 특징이다.





강희맹 선생 신도비

## 2. 강희맹 · 강명한

### 문인관료로서의 삶과 업적

강 제 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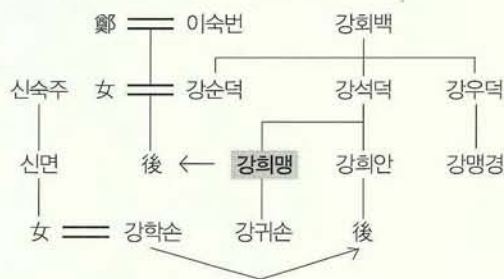
## I 머 리 말 I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세종 조에 출생하여 성종 조까지 활동하였다. 여섯 왕대에서 관직을 역임하면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적지 않은 양의 개인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공신에 봉해진 성공한 정치가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사숙재집(私淑齋集)』을 통해 기억되는 당대의 문장가였다. 그의 이색적인 저술 『금양잡록(衿陽雜錄)』에는 당시의 농업 생활상이 그림처럼 담겨 있어 역사적으로 특별히 주목받기도 한다.

강희맹과 같이 다양한 면모를 가진 인물을 제한된 지면을 통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그가 살았던 시대는 삶의 사회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후기의 조선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를 이해하는 접점을 찾기 위해 먼저 가문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오늘날과 현저하게 달랐던 당시의 사회상에 주목할 것이다. 이어서 정치적 환경이 그의 관직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공직 생활을 통해서 남긴 자취를 살피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략적인 스케치로 강희맹의 전체상을 그리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 1. 가문 배경과 가계(家系)상의 지위

강희맹은 내·외향이 두루 명문의 거족이었다.<sup>1)</sup> 진주(晋州)를 본관으로 하는 강희맹의 친계는 고려조에서도 명문이었다. 종조(從祖)인 강희계는 공양왕의 사위였다. 조부 회백은 왕조실록에 뛰어난 치적이 평가된 졸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종조 회중(淮仲)도 『고려사』 및 실록에서 관력 기록이 확인되는 재



【그림 2】 강희맹 가계도

1) 조선 초기 관인들은 8향(鄉)을 연고지로 간주하였다. 여기서의 향(鄉)은 해당 성씨의 본관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의 내외향을 말할 때, 본인의 본관이 내향(內鄉), 어머니의 본관이 외향(外鄉)이었다. 고위 관직자는 이들 8향의 사심관이 될 수도 있었고, 해당 지역의 지방관으로 파견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8향은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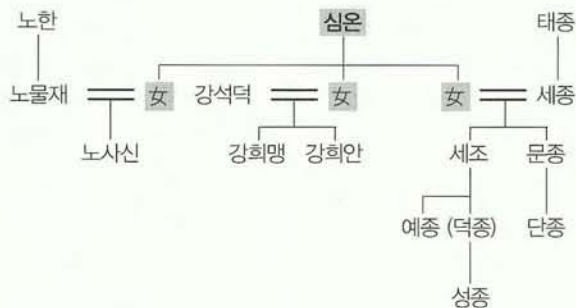
【그림 1】 팔향도(八鄉圖)

상급 관료였다. 이들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회계가 죽임을 당하고, 증조인 강시(姜蓍)를 비롯하여 회백·회중이 유배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렇듯 이 집안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태종이 정권을 장악하는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다시 중용된다. 당대의 명문이었다는 점, 문장으로 소문이 난 실력 등등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지만, 태종의 집권에 따른 정국 운영 세력의 변화가 이 집안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강시·회백으로 이어진 집안의 입지는 정치적 굴곡을 겪기는 했지만, 세종 일대를 걸쳐서 지속적으로 공고해졌고, 강희맹 당대에 와서 더욱 단단해진다. 사촌형 강맹경은 세조에 협력하여 좌익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었다.<sup>2)</sup> 형 강희안은 전성기의 집현전에 봉직하면서 그 재주와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희맹 본인은 과거 장원 출신<sup>3)</sup>으로 익대·좌리 양 공신의 칭호를 받았고, 이조·예조 등의 판서를 거쳐 벼슬이 좌찬성까지 올랐다.

명문으로서의 이 집안의 위치는 혼인 상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희맹의 외향(外鄕)은 청송으로, 당대 최고 명문가의 하나인 심문(沈門)이었다. 강희맹에게 세종은 사적으로 이모부였고, 문종·세조와는 외사촌 사이였다. 또 다른 이모부는 좌의정을 지낸 노한의 외아들 노물재이고, 세조·성종대의 명신 노사신이 외사촌이었다. 희맹의 양부(養父)이기도 한 순덕은 태종대의 명신 이숙변의 사위였다. 이숙변의 처는 표전문제로 명(明)에 억류되었다가 사망한 정충의 딸이었다.

명문가와 외향의 혼인이 정치적 부침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었다. 당대의 실력자 이숙변은 태종의 견제를 받아 유배되었다. 이와 함께 석덕의 장인 심온은 세종 초 상왕인 태종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결국 심씨 일가는 노비 신분으로 격하되었고, 그 주변 세력의 정치적 처지는 대단히 곤궁해졌다. 그러나 태종에 의해 노비 신분으로 강등된 희맹의 외가는 문종 대에 복권되었다. 외삼촌 심희는 성종 대에 영의정으로 현달하기도 하였다. 이숙변에 대한 세종의 평가도 우호적이었다. 세종 일대를 걸쳐서 희맹의 선대가 2품 이상의 고위직을 역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림 3】 심온 집안의 혼인도

관인(官人)의 연고지로 본인의 내외향은 물론 처의 내외향도 포함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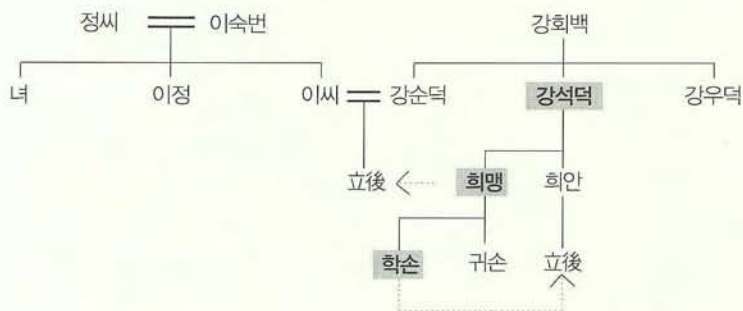
- 2) 강맹경이 강희맹과 사촌인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 복잡한 집안의 내력이 얽혀있다. 조부인 강희백은 상처한 후 후처를 들었는데, 상처한 전처에게서 우덕을 얻었고, 그의 아들이 강맹경이었다. 후처에게서 석덕, 순덕 형제가 태어났고, 강희맹은 이들 중 석덕의 자식이었다. 강맹경과 희맹은 사촌간이기는 했으나, 조모(祖母)는 서로 달랐다.
- 3) 하연은 세조·문종대에 걸쳐 정승을 지낸 인물이었다. 강희맹이 장원한 시험의 시험관이 하연이었는데, 강희맹의 조부 회백이 하연의 부친과 외사촌 사이가 되어, 강희맹과는 표속(表叔)관계였다. 하연의 서울 입사에는 강석덕 등이 크게 도움을 주었고, 강희맹은 하연의 행장을 짓기도 하였다. 이런 인연이 과거 시험 평가에 불리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후대에 글로써 보여준 강희맹의 명성을 고려할 때, 그가 장원한 것은 전적으로 실력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희맹은 순흥 안씨, 안승효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안축(安軸)의 직계인 이 집안 역시 전혀 손색없는 명문이었다. 아들 학손은 신숙주의 손녀 사위였다. 강희맹 집안은 선대부터 혁혁한 명문이었고, 못지않은 명문가와 혼인으로 집안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강희맹은 왕실의 지근한 의친(義親)이었고, 그의 친인척 중에는 당대의 고위 관직자가 즐비하였다. 명문적 배경에 더하여 과거에서 장원한 출중한 실력자였고, 문장으로 서거정(1420-1488)·이승소(1422-1484)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강희맹의 가계(家系)는 그를 중심으로 하여 독특한 내력과 갈등을 담고 있다. 15세기의 조선에서는 가족제에 커다란 변화가 시도되고 있었다.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종법(宗法)이라는 부계(父系) 친족(親族)을 중심으로 엮어진 중국식 가족제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요되고 있었다. 고려(高麗) 이래 전통적인 가족제에서는 내·외향이 대등하게 취급되고, 처번(妻邊)도 못지않게 강조되었다. 부계친만을 강조하는 중국식 제사와 동종(同宗)의 지자(枝子)를 입후(立後)하는 양자제(養子制)는 당시의 조선에서는 낯선 것이어서 이의 도입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다.

강희맹은 두 살 되던 해 숙부 순덕의 집에 입양되어 길러졌고, 이숙번의 딸인 양모(養母)의 사랑을 크게 받은 바 있다. 세종 23년(1441) 양모는 희맹에게 입후(立後)양자(養子)로서 재산을 상속시켰고, 희맹은 양모에 대한 상제(喪制)를 마치고, 제사를 받들었다. 양외조모인 이숙번의 처 정씨가 딸이 자식 없이 죽었으므로 재산을 환수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상언(上言)을 올렸고, 단종 즉위년(1452) 논란 끝에 정씨 계열의 재산은 정씨가 임의 처분하고, 이숙번 몫의 재산은 정씨가 관리하다가 정씨 사망 후, 남편 이숙번의 생전 결정에 따라 강순덕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입후(立後)된 양자(養子)를 자손으로 간주하지 않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유교식 상제(喪制) 및 제사(祭祀)를 시행하려는 정부 방침 사이의 갈등과 타협을 반영한 조치였다.

희맹의 가계(家系) 상의 지위는 양부(養父)인 순덕의 사망 후 다시 문제가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종자(宗子)에게 아들이 없으면[無後], 종자(衆子)가 종자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으로 동종(同宗)의 지자(枝子)를 입양하여 입후(立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형 희안이 후사 없이 사망했다는 조건에서 희맹은 형을 대신하여 아버지 석덕의 가계를 이을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숙부 순덕의 양자로 입후(立後)되었고, 자신의 둘째 아들 학손을 희안의 양자로 입후시킨 상태였다. 조선 후기의 사회적 환경에서는 이런 소송은 논의의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희맹 당대에는 논란이 되는 사안이었다. 이미 순덕의 복제(服制)를 마친 희맹은 다시 생부(生父) 석덕을 승사(承嗣)하도록 결정되었고,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이 결정을 항식(恒式)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4】 강희맹 家系圖

가계의 계승 및 상속의 문제는 지배층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었다. 조선의 방침은 사회적 관행에 반하여 부계친 중심의 종법(宗法)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양자 입후는 부계 중심의 제사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제였지만, 사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강희맹 가계도 그런 갈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양외조모 정씨는 사회적 관행에 근거하여 종법적 질서를 수용한 희맹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한편 희맹 자신도 양부 순덕의 복제를 마친 후, 생부 석덕의 지위를 계승하게 된다. 법적 해석을 거친 것이었지만, 아직 종법적 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결정이었다.

희맹의 가계(家系) 문제는 당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상속 및 지위 계승의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다. 또 결정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정부의 요직자에 의해 논의되고, 국왕의 재가를 받은 새로운 법 해석이 마련되는 등 이 집안의 사회적 지위가 유감없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어쨌든 희맹은 집안사가 개인적 차원에 머물 수 없는 대단히 유력한 가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가문의 연장선상에 왕실이 개입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

## 2. 정치적 환경에 따른 관직생활의 추이

강희맹의 관직 생활은 세종에서 성종에 걸친다. 6명의 왕을 모시는 이 시기는 정치적 변화가 극심하였다. 혼미한 정치 상황은 때로 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희맹에게 불리하지는 않았다. 그는 관직 재임 중 두 번 공신에 봉해졌고, 이조·예조·형조의 판서직을 역임하면서 좌찬성의 직위에까지 올랐다.

문종 원년 예조좌랑으로 있었는데, 세종의 소상(小祥) 절차에 오류를 범하여 파직되었다. 초기 관직 생활에서의 위기였다. 대과의 장원, 감찰, 좌랑으로 이어지던 엘리트 코스의 젊은 관인에게 큰 시련이었다. 단종 원년의 계유정난은 그에게 기회가 되었다. 수양대군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인원을 원종공신으로 지정하였다. 희안과 희맹도 이때 원신공신으로 기록되었고, 희맹은 좌랑직에 복직되었다.

세조 2년에 벌어진 사육신 사건은 강희맹의 집안에도 먹구름을 몰고 왔다. 형 희안은 집현전 관직을 역임한 관인이었고, 사육신 주모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희안은 사건의 계획 단계에서 참여를 권유받았고, 그러한 정황이 드러났다. 혹심한 조사가 이어졌다. 결과에 따라서 집안의 운명이 좌우될 상황이었다. 희맹은 아내의 행장(行狀)에서 아버지 석덕이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가슴 졸이던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극절 끝에 형 희안은 석방되었다.

형 희안이 혐의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희맹은 세조대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였다. 희맹은 사육신 사건 이후 판통례문사를 거쳐 당상관에 오르게 된다. 예전(禮典)을 담당하는 예조의 핵심 정책 담당자로 활약하게 되는 것이다. 세조 12년 발령시와 등준시에서 연이어 갑과(甲科)에 오름으로써 판서의 지위에 올랐다. 이 시기의 희맹은 세조의 병을 간호하기 위해 밤을 새워 근무하는 지근(至近)한 시신(侍臣)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세조 13년의 이시에 난은 당시의 권력 실세를 할퀴고 지나갔다. 한명회·신숙주는 혐의를 받아 투옥되었다. 난을 진압해야 할 원정군은 지지부진하였다. 신숙주는 아들 신면이 난군에 참살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어렵게 난이 진압되면서, 사후 처리가 큰 현안이 되었다. 예조판서로서 개선군의 뒤처리를 담당하던 희맹은 이 과정에서 세조의 질타를 받았고, 파직되었다. 물론 세조의 신임이 두터워서 다시 관직을 임명받기는 하였지만, 입지가 예전 같지는 않았다.

예종의 즉위와 이어지는 남이의 옥사는 그에게 기회였다. 희맹은 평소 남이를 좋지 않게 생각했고,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남이의 일당이 처벌되면서 익대공신이 봉해졌는데, 희맹은 공신에서 제외되었다. 그는 직접 상소를 올려 공신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건에 대한 예종의 자문 대상은 신숙주였다. 희맹과 사돈 관계에 있던 신숙주의 대답은 당연히 우호적이었고, 약간의 파란이 있었지만 결국 익대공신 3등에 봉해질 수 있었다.

예종이 즉위 일년여 만에 사망하면서 왕위 계승 문제가 혼미해졌다.<sup>4)</sup> 예종에게는 왕위 계승의 정당한 자격을 갖춘 아들(제안대군)이 있었다. 세조 3년 세자의 지위에 있다가 병사한 의경세자(덕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세자빈(인수비)이 생존해 있었다. 왕위는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율산군(성종)에게 돌아갔다. 이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 공이 인정된 관인에게 좌리공신의 칭호가 내려졌는데, 희맹도 그에 포함되었다.

공신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주어졌다. 세조대 정국 운영은 사실상 공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희맹의 사촌 형 맹경은 세조 추대의 공으로 공신에 봉해졌고, 영의정으로서 중용되었다. 반면 형 희안은 인수부윤이라는 한직에 머물다 사망하였다. 희맹은 왕실의 지친으로 문명을 크게 떨쳤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공신의 자리가 절실하였다. 결국 생평(生評)에 오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는 자신을 공신으로 천거하는 글을 올렸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

성종 대 그의 관직 생활은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성종 초기 질병으로 형조의 판서 직에서 해임되었지만, 지경연사(知經筵事)로서 경연에 참여하였다. 성종 대의 경연은 여느 왕대와는 달랐다. 수렴청정 기간 중의 경연은 성종이 국정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안목과 감각을 익히는 훈련이었다. 성종은 친정(親政) 이후에 오히려 경연을 강화하였다. 하루 3회 실시하는 조강·주강·석강으로도 부족하여 야대를 하는 상황이었고, 거르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세종대의 경연이 정치색이 없는 학문 목적의 자리였다면, 성종 대 경연은 정치적 기능이 특징이었다. 경연은 정부의 현안을 논의하고, 세조 대 이래 비대해진 원훈(元勳)들을 견제하는 자리였다. 희맹은 바로 그 경연에서 왕의 유력한 보필자였다.

성종이 수렴청정의 그늘을 벗어나 친정(親政)하면서 희맹은 이조판서의 요직에 발탁된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희맹은 공신이며, 훈구(勳舊)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성종의 파트너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다. 성종 대의 희맹은 개인적 실력이나 정치적 입지를 바탕으로 신숙주와 같은 원훈, 서거정과 같은 문형, 김종직과 같은 사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에 대한 성종의 전폭적인 신뢰는 원자(元子; 훗날의 연산군)를 그에 집에 의탁하는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모후(母后)의 사사(賜死)로 곤란한 처지에 있던 원자는 병구완을 이유로 성종 9년 희맹의 집에 맡겨졌다. 연산군이 되는 원자는 이때의 기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희맹의 처는 원자를 극진히 보살폈고, 성종에 의해 그 공이 인정된 바도 있었다. 성종대의 정국에서 희맹은 동량(棟樑)으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였다.

이조판서로의 처신에 대한 투서 사건도 있었다. 희맹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는 스타일이었다. 수차례의 상서를 통해 투서의 부당함을 적극 해명하였다. 투서 사건에도 불구하고,

4) 세조 사후 왕위 계승후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예종의 형이었던 병사한 세자 덕종(추존)의 둘째 아들 성종이 예종을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 왕위계승은 수렴청정이 결정된 정치왕후와 그를 옹호한 세력에 의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었다. 훗날 성종은 친부를 덕종으로 추존하게 되면서, 예종이 종묘에서 밀려나는 예전 상의 분란이 야기된다.

의정부의 일원으로 발탁되었다. 우찬성에서 좌찬성으로 승진을 거듭하는 중에 병사하게 되었다.

### 3. 관력(官歷)과 공직에서의 업적

강희맹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다. 음서(蔭紱)에 의한 입사가 가능하였으나, 과거를 고집하였다. 집현전 직(直)에 보직되어 집현전 경력을 가진 마지막 세대의 문신이었다. 그의 관력은 명문가 자제라는 배경에 걸맞게 대단히 화려하다. 표는 희맹의 주요 관력을 정리한 것이다.

연 도	역 임 관 직							비 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기타관직	
1447	世宗29						중부시주부(사헌감찰)	문과장원
1450	32			좌랑				
1451	文宗元						돈녕부판관	좌랑파직
1453	端宗元			정랑				계유정난
1455	世祖元			정랑			직집현전	
1456	2						동첨지돈녕부사	
1457	3						판전농시사	
1458	4			참의		참의	판통례문사	箋文試, 母·父·聘父喪
1461	7						첨지중추, 세자보덕	
1462	8	참의		참의				
1463	9			참의			중추부사	중국사행
1464	10					참판	중추부사	강희안후
1465	11	참판						
1466	12			참판				발영시
	12			판서				
1467	13				판서		검성균지사, 도총부	이시애난, 예조파직
1468	睿宗位						검지경연사	
1469	元						진산군	익대공신3등
1470	成宗元							질병 해직
1471	2						판돈녕부사, 지경연사	좌리공신3등
1473	4				판서			
1474	5							養父喪
1476	7						판중추부사	강석덕奉祀
1477	8	판서						
1478	9	의정부 우찬성						
1481	12	검춘추관지사, 의금부판사						
1482	13	의정부 좌찬성						
1483	14							卒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희맹은 육조(六曹)의 낭관을 거쳐 중앙의 현직(顯職)만을 역임하였다. 외관(外官) 경력 없이 당상관과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급제 초기에 잠깐 사헌 감찰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그 후 사헌부나 사간원의 관직을 거치지 않았다. 서거정이 대사헌으로서 성가를 높인 것과는 분명히 차별된다. 강희맹은 6조 중 호조를 제외한 나머지 관서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농서·금양잡록·의 저자로 유명하지만, 호조(戶曹)의 관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예조의 관력이다. 낭관 직을 예조에서 시작하였고, 당상관으로의 승진도 예조 참의를 통해서였다. 판서 직의 경우도 예조 직을 시작으로 다른 관서의 직을 역임하게 된다. 세조 4년 모친상으로 관직을 사임한 시기에 『경국대전』의 편찬에 호전(戶典)의 한계희, 예전(禮典)의 강희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최항의 상소가 있었을 정도로 예제 전문가로서 희맹의 위치는 성가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국조오례의』는 『경국대전』과 함께 조선 국가례(國家禮) 체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는 예서였다. 『경국대전』에서는 각종의 의주(儀註)를 『국조오례의』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책은 희맹의 손을 거쳐 성종 5년에 완성되었던 것이다.

희맹은 나약한 문장가는 아니었다. 세조에게서 강명(剛明)하다는 평을 받은 인물이었고, 이러한 인물 평에 걸맞게 형조판서의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세조 13년 예조판서에서 파직되었던 희맹은 같은 해 12월 형조판서를 제수 받아 성종 초까지 판서 직을 수행하게 된다. 세조 말년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고, 비례하여 도적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 무렵 무안 출신의 장영기(張永己)라는 도적은 지리산에 은거하면서 폭력단을 조직하여 경상·전라 일대에서 살인과 강도를 일삼기도 하였다. '도적은 양민이 될 수 없으니,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러한 입장에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희맹은 강경론을 주도하여 세조 말년 이래 도적이 만연하던 치안상의 혼란을 정리하는데 성공하였고, 그의 관력에서 주요한 업적으로 평가받았다.

각종 편찬 사업에의 성공적 참여는 희맹의 주요 업적으로 회자된다. 공적(公的)으로 『세조실록』 및 『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세조대 『신찬국조보감』, 성종대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등의 사업에 관계하게 된다. 사적으로 집안의 문집인 『진산세고』를 편찬하였고, 사후 서거정의 손을 빌어 『사숙재집』이 출간되었다.

조선은 건국 초 명(明)과 표전(表箋) 문제로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정충과 같은 사신은 이 마찰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고, 명에 대한 무력 충돌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경험이 있었다. 명에 대한 외교문서의 작성은 이래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 되었고, 이 작업을 관장하는 관인이 당대 문형(文衡)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강희맹 시대에는 서거정이 이를 독점하였다. 『연려실기술』에는 서거정이 희맹이 맡는 것을 꺼려하여 장기간 문형의 자리를 놓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두 사람은 5년 정도 연차가 있지만, 일생의 벗이며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였다. 서거정이 지은 신도비 명에는 희맹에 대한 서거정의 강한 경쟁의식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희맹은 문형(文衡)을 맡지 못했으나, 이것이 문장가로서의 그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았다. 역사는 강희맹·이승소 등에게 문형을 양보하지 못한 서거정의 좁은 속내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 1 맺 음 말

강희맹은 뛰어난 개인이었다. 그러나 철저하게 사회적 조건에 긴박된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의 집안은 명망 있는 선대와 유력한 가문과의 중첩된 혼인을 통해 다져진 전형적인 명문가족이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남녀균분 상속과 비유교적 사회 관행이 중국식의 종법(宗法)과 양자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와 충돌하고 있었다. 강희맹 가계는 바로 그러한 갈등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였고, 희맹 자신이 그 중심에 있었다. 양부와 장모 사이의 재산 분쟁과 생부 석덕의 가계 계승에서 야기되었던 혼란은 당시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였다. 강희맹 가계는 시대를 뛰어넘어 종법적 질서를 온전하게 수용하지도 못했고, 또 당시의 사회적 관행에 침잠되어 정부의 새 시책을 거부하는 쪽도 아니었다. 당시 지배적 위치에 있던 대다수의 가문이 겪은 혼란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희맹과 그의 집안 인물들은 격변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국외자에 처하지 않았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성종 대에 이르는 시기동안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집안 관인의 관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강희맹은 공신에 책봉되고, 고위 관료로 자연사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성공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던져지는 비난에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공신에 책봉되기 위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옹호하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었다. 뛰어난 문장이이기도 하였지만, 추진력을 갖추고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한 유능한 관료였다. 당시의 조선은 유교적 예치 체제를 정비해 가고 있었다. 강희맹은 그러한 예제 정비과정의 핵심에 위치하였다. 명과의 관계가 핵심적인 관심 사안이 된 이 시절, 조선은 문화적인 면에서 이와 맞서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강희맹은 그러한 과정에서 배출되고 활약한 대표적 관인이었다.

한 인물의 삶과 성과는 시대나 기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희맹은 당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전문 관료였고, 인간상이었다. 최선을 다해서 공적 생활을 준비했고, 신명을 다하여 그의 시대를 살았다. 그러했던 모든 사람이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선대의 유산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을 더하여 만년으로 갈수록 일생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성공적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겨진 『국조오례의』 『사숙재집』 『금양잡록』 등의 문화적 성취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私淑齋集』  
『국역사숙재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晉山世稿』  
『經國大典』  
『經濟六典輯錄』  
『高麗史』  
『國朝五禮儀』  
『新增東國輿地勝覽』  
『燃藜室記述』  
『朝鮮王朝實錄』(태조 - 연산군)  
『죽보』(진주 강씨, 순흥 안씨, 안성 이씨, 진양 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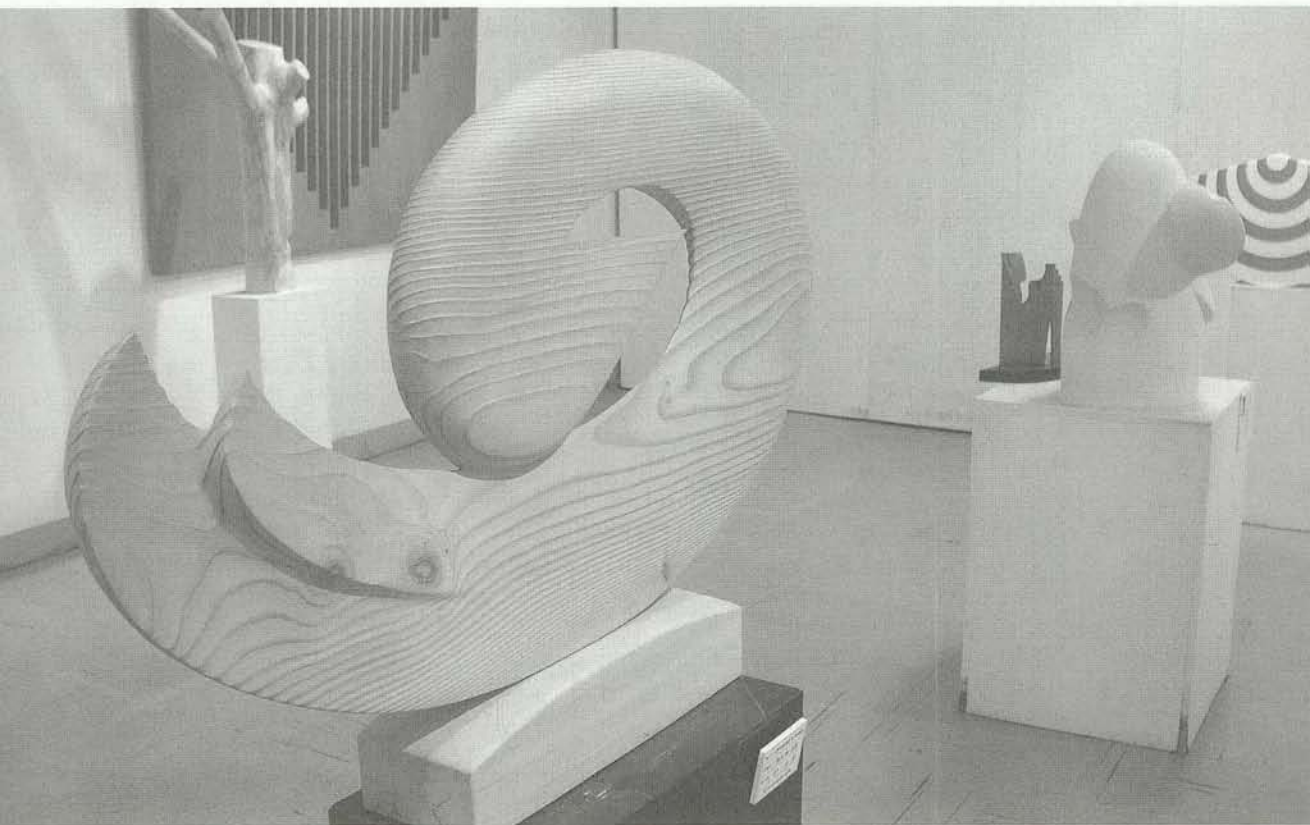
- 鄭杜熙,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研究』 일조각, 1983.  
鄭在勳, 『衿陽雜錄研究』(동아대 석사논문), 1985.  
安章利, 『姜希孟 文學研究』 『文學研究』 7, 우리어문학연구회, 1988.  
鄭容秀, 『私淑齋 姜希孟 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3.  
박경안, 『姜希孟의 家學과 農業經營論』 『實學思想研究』 10?11, 1999.  
『강희맹(1424-1483)의 농장(農莊)에 관하여』 『역사와 현실』 46, 2002.  
『姜希孟(1424-1483)의 農學理論의 형성과정에 관하여』 『京畿鄉土史學』 7, 2002.

## ‘기원으로부터’의 짧은 여행

조각가 안시현

글 | 백인숙  
뷰티풀시흥 기자





**비**가 온다.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다. 파란 우산을 펴들었다. 여름엔 어떨까 몰라도 가을엔 어울리지 않는 색의 우산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나선다. 낙엽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쳐다보니 문득 낙엽을 닮은 낙엽색깔의 바바리가 생각났다. 언젠가 본 그의 바바리가.

안시현(49세), 먼 발치에서 몇 번 보아온 그, 검은 머리 사이로 희끗희끗 흰머리가 조화를 이룬 곱슬머리, 어찌보면 약간 놀란 듯한 눈이 그를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버리기도 한, 뭔가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

조각가 안시현. 가을비가 파란 우산을 적시던 날, 조각가인 그를 만나러 갔다. 부천행 61번 버스를 타고 신천동을 지나 소래농협 정류장에서 내렸다. 길을 건넜다. 대야종합복지관에서 신천동 방향으로 약100m정도 내려왔을 지점, 뽁뽁이 들어선 상가들 틈 사이에 'A&K조형갤러리'란 목조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두 개의 문을 만난다. 왼쪽은 갤러리. 오른쪽은 가람도예연구소. 그가, 혹은 그곳을 들른 사람들이 빗었을 토기, 도자기들로 가득한 곳, 도예연구소에 그가 있었다. 약간 미소를 머금고, 예의 그 약간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의 낙엽색깔 바바리도 그곳 탁자 위에서 하나의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우리시에 갤러리가 다 있었나?' 하고 의아해 할 사람들도 있으리라. 문화시설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길을 지나다 '○○갤러리' '◇◇갤러리'란 간판을 보고 "갤러리?"하고 반색을 금치 못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상호임을 알고 허탈해 했던 사람에게도.



‘A&K조형 갤러리’는 2000년 5월 그의 손으로 문을 연 시흥시 최초의 민간갤러리란 점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지난 1999년 서울에서 연성동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작업과 전시를 같이 해보려는 생각에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문화적인 태동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고,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대도 있었지요. 지역 작가를 중심으로 전시실을 대관할 계획이었습니다. 형식과 장르에는 구분없이 학생이나 장애인들의 작품발표나 기획전시, 또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싶었구요.”

‘정진철 도예전’을 시작으로 개관한 갤러리에선 그의 계획대로 ‘시흥사생회 창립전’ ‘시흥미술 새로운 지평전’ ‘향미회전’ ‘국토종단 스케치 여행전’ 등 시흥미술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지금은 그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같은 해 6월말 문을 연 도예연구소는 자신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도예교실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되었다.

그의 세계가 궁금했다. 서울산업대 졸업 후, 86년 금속공예가인 경명옥 씨와 결혼과 동시에 이탈리아에 가서 밀라노 국립미술대학(조각 전공)을 졸업하고 7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마쳤다. 1992년 귀국, 93년부터 5년간 서울산업대와 홍익대에서의 강의경력을 갖고 있다. 제 1회 이탈리아 포사노 국제조각 심포지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이탈리아에서 2번, 서울에서 2번, 시흥에서 2번 총 6번의 개인전을 갖고 수십회의 단체전, 초대전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제가 예술가의 길로 들어선 것은 중학교 때 홍익 미대에 다니던 누나 친구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의 그림을 보고 관심을 보여줬던 것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서울산업대에서 도예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제 3회 중앙미술대전에 조각작품을 출품했는데 입선을 했

더라고요. 그 때부터 조각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83년 한국미술청년작가회에 들어가 그룹활동을 하며 본격적으로 조각에 입문하게 되었지요.”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 갤러리로 건너갔다. 어두운 갤러리 천장에 붙은 형광등만 켜고 전시된 작품을 보고 있자니 그가 조명등을 켜준다. 조명등 불빛과 함께 작품들이 살아난다. 동시에 그가 35평 공간 안에 숨쉬고 있었다.

기원으로부터? 대부분 작품의 제목이었다. 부제목으로는 우주 아니면 생명, 인간. 그의 작품을 보고 있자니 겨울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땅 속 깊은 곳에 온갖 생명을 품고 있는 따뜻한 겨울 땅 속, 길에서는 아무런 감새도 느낄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대지 위를 향해 힘찬 발돋움할 채비로 분주한 듯한 겨울 땅 속.



‘기원으로부터’는 1회 개인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그의 일관된 주제이다. ‘하늘과 땅 사이’ ‘태초의 강’ ‘기원의 비밀’ ‘그날 이후’ 같은 작품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우주의 생성기원과 원류를 찾아나서려는 철학적인 염원이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충족되지 않는 정신적인 갈망에 대해서, 그리고 수천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존속하는 무한과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각가 바야넷 뉴우먼과 부랑퀴시의 작품세계와 일맥상통한다.

그의 작품 주제가 극히 관념적이듯이 작품도 당연히 비구상 성향이 강하다.

“딱 보면 뭘 만들었는지 다 알 수 있는 작품에는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 비구상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알 수 없는 걸 찾아나선다는 점, 좀더 작품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 있고 여운이 남는다는 점, 사고적이고 은유적이라는 것에서 매력적이지요. 그러면서도 일반인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작품소재는 초기엔 철조, 브론즈, 도자, 목조, 석조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다. 지금도 아이디어와 같이 따라와 줄 수 있는 재료라면 한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어떤 재료든 사용하지만 흙, 나무, 돌, 한지 등 인간과 자연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재료에 더 호한다.

총 6회의 개인전 중에서 2001년 1월달에 연 마지막 작품전은 그에게 특별하게 다가온다. 5회까지는 개인적인 작품을 선보이다가 6회엔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시로 확대, '기원으로부터 새로운 항해'란 제목으로 퍼포먼스를 준비하기도 했다. 새로운 세기를 향해 출항하

는 길이 6m의 배를 합판과 대나무, 한지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관객들의 소망을 적어 뱃전에 붙이게 한 후 전시가 끝난 정월 대보름날 포동염전에서 불사르는 새로운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조각가라는 명칭 외에도 한국미술협회 시흥시지부 부지부장, '맑고푸른시흥21' 문화분과위원장, 연성동 자치위원과 숲속마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는 칭호가 붙는다. "제가 작품활동 외에 지역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시흥에 처음 와서 시흥의 제21 문화분과 의제 초안을 잡으면서 지역문화예술 환경의 열악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고하게 작품활동만 고집하지 않고 지역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지역정체성을 미술과 연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행사장을 다니며 시흥문화예술관 건립에 대한 서명운동도 벌였고, '시흥시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시흥시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등 시흥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흥시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대안이 눈에 띈다. 그는 기존의 시흥시 지역축제가 "지역민의 피부에 와 닿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지역적인 여러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시의 정체성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전제, 우리시의 문화적인 역사성과 지역적인 특성이 고루 고려된, 우리시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축제로 '오이도 패총 신석기 문화축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는 이 대안에서 지금까지의 보여주는 축제에서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축제로, 즐기고 남는 것이 있고 가지고 가는 의미있는 축제로, 다시 오고 싶은 축제로, 시흥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면모의 축제 형태를 보여준다.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숲속마을 아파트 내에서도 문화체험캠프, 영화 상영, 마을문고 건립, 동주민 화합축제를 여는 등 아파트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힘쓰는 한편, 목감동 소망선교원 지체장애자들과 엘림양로원(매화동) 할머니들을 위한 도예수업 등 봉사활동도 해오고 있다. 내년 봄쯤 제 7회 개인전을 열 계획인 그에게는 꿈이 있다.

"한 20년 전부터 구상해왔던 건가봐요. 지하에서 벗어나 작품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야외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음악회, 연극공연, 시낭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겠고, 저의 작품을 아이들이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뛰어놀며 체험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지역문화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의 머리 속에는 '기원으로부터' 품어왔을, 모든 근원을 감싸안은 엄마의 자궁 속 같은 세계를 늘 꿈꾸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을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는 슬슬 그의 꿈을 향한 비상을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 포동엿염전은 ‘生염전’

글 | 신 연 호  
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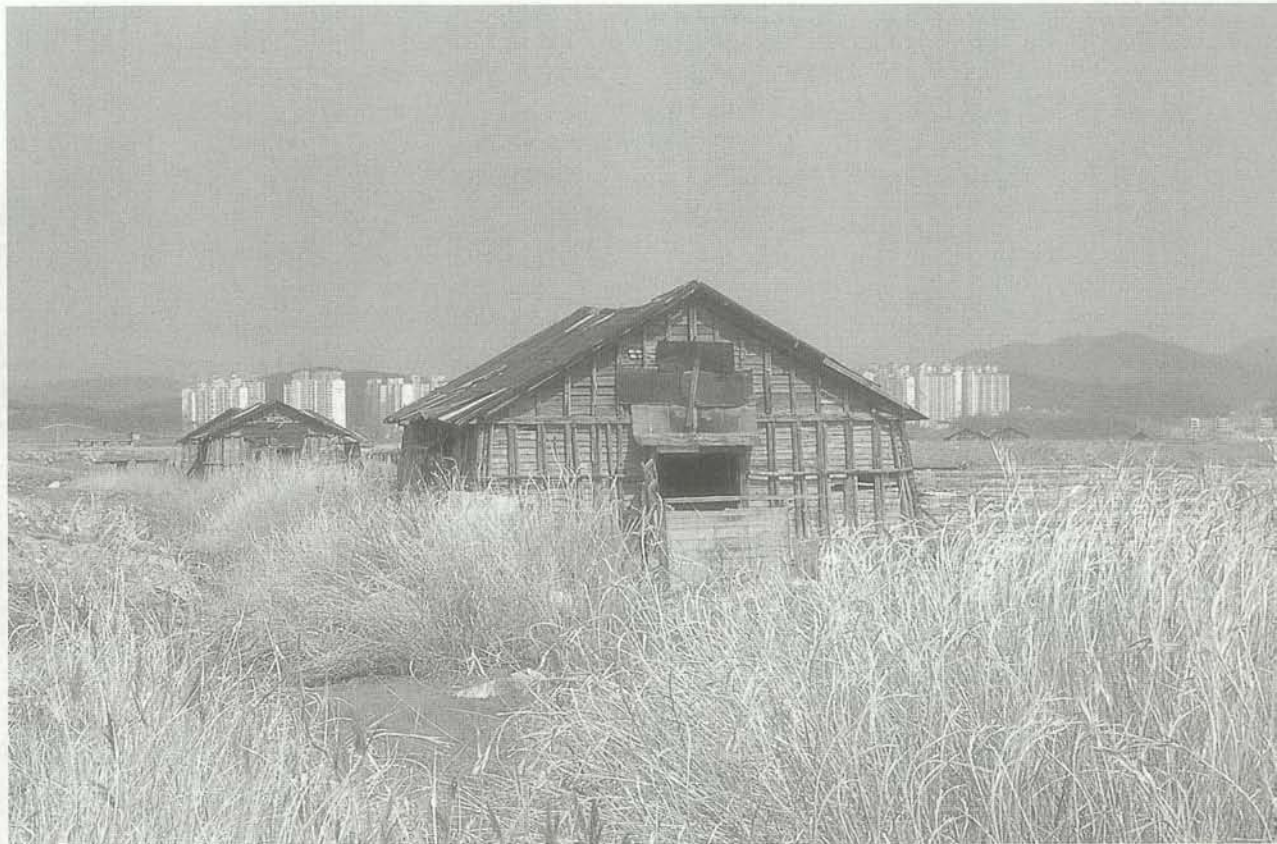


## 옛염전, 사라지는 것에 대한 소회

세월에 빛이 바랜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남의 것일지라도 묘한 향수로 가슴이 젖어움을 느낀다. 겉모습은 남루해도 그 속에 담겼을 사람의 역사와 추억,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짐작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일까? 월곶, 방산, 포동, 장곡동을 관통하며 도시 한복판에 무심히 누워있는 옛염전 별을 바라보노라면 을씨년스런 풍경 속에서도 한편 애잔한 감상이 찾아든다. 비록 지금은 폐허의 모습으로 저렇게 누워있지만, 이곳에는 눈부신 햇살과 맑은 바람으로 하얀 소금 꽃을 피워내던 지난 60여 년의 역사와 그 세월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몰 박혀 숨쉬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옛염전 선언이 있는 지 7년이 지났지만, 이곳이 유명한 소금밭이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네모반듯하게 구획된 염판은 아직도 그대로의 모습이고 곱게 다져진 개흙 위에는 깨끗한 소금을 수확하기 위해 깔았던 검은색 타일이 조심스레 얹혀 있다. 빼대만 남아 앙상한 소금창고는 나름대로 위용을 자랑하고, 소금밭 언저리에는 바닷가에서 흔하게 자란다는 나문제가 가을부터 자주색 자태를 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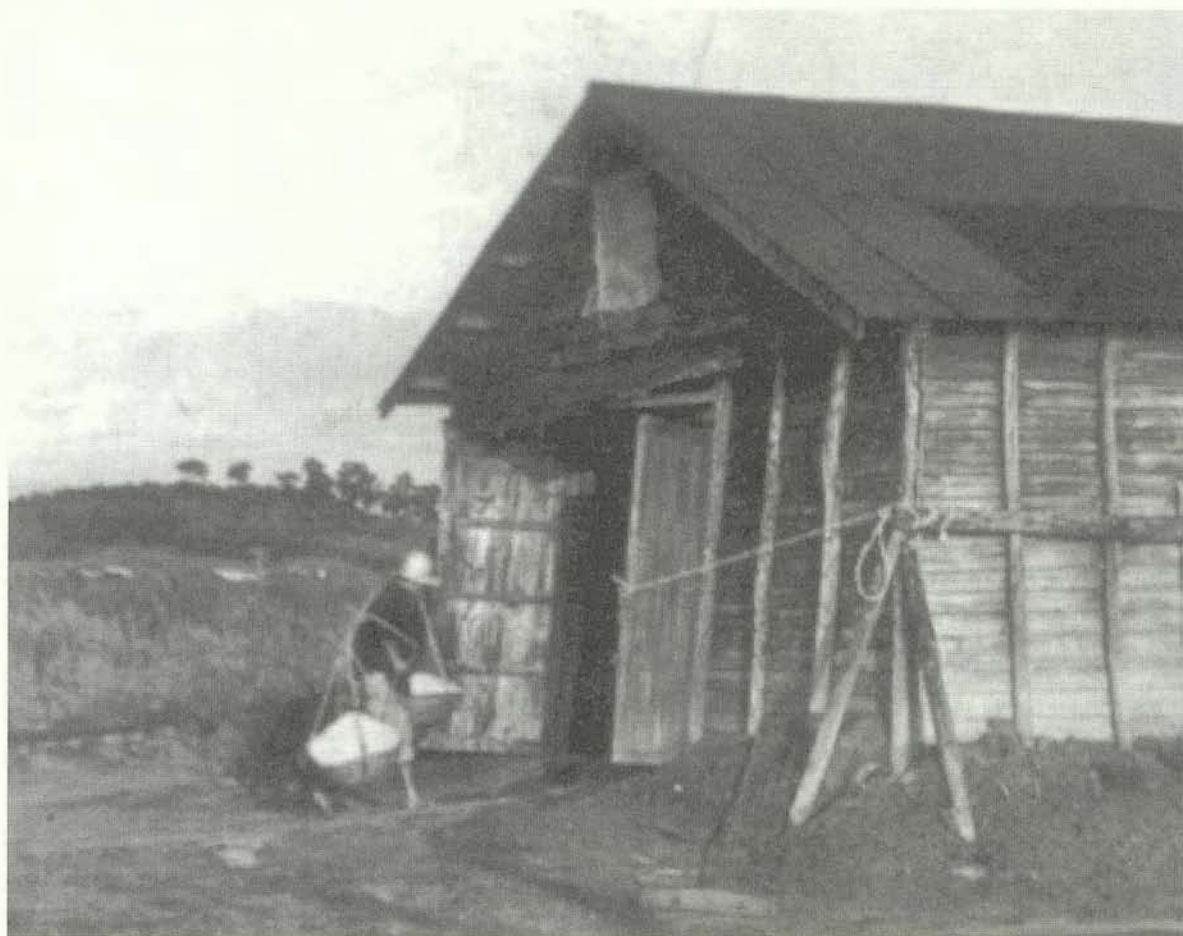


## 슬픈 민족사를 품고 태어난 소래염전

**사** 람들은 편의상 포동 옛염전이라 칭하지만 인천 소래에서부터 시작되는 이곳의 원래 명칭은 소래염전이다. 지역이 방대하여 구분을 하다보니 월곶 부근은 달월염전, 포동 부근은 새우개, 혹은 포리염전이라고도 불리었다.

지금은 갯내음의 흔적조차 말기 어렵지만 포동 새우개 마을(현재 포리초등학교 부근)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인간의 무소불능은 이 벽해를 막아 제방을 쌓고 갯고랑을 파 염전을 만들었는데 인천 논현동쪽은 1935년에 군자면(현 월곶부근)과 소래읍(현 포동일원)지역은 모두 1937년 준공되었다 한다.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천일염전이라는 인천 주안염전이 조성된 이래, 일제는 오이도의 군자염전을 비롯해서 서해안에 본격적으로 염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천일염업지로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졌던 서해안은 품질과 채염량에 있어서 중국이나 대만소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제는 서해안 일대의 염생산과 공급을 장악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조선총독부의 재원으로 쓸 수 있었다. 소래염전은 이렇듯 수탈이라는 서글픈 민족사의 단면을 품고 태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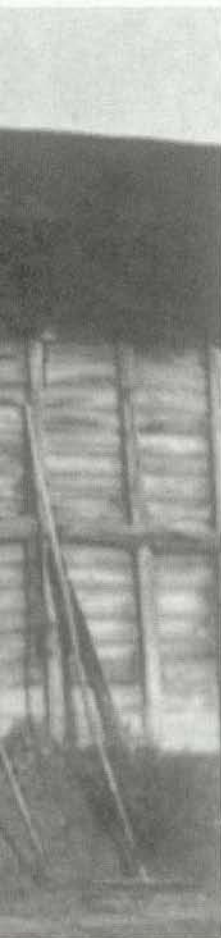
## 염전에서 의 삶과 추억

**탄** 생배경이야 어떻든 소래염전은 시흥지역 사람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생활기반이 되었다. 일제 때는 염전 일을 하면 징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서 염전 노무자가 되기 위해 줄을 달 정도였고, 염전 관사가 있던 월곶 섬산 주변과 신현동의 신촌 마을에는 이미 일제시대에 전기가 공급되었다는 이야기가 대를 이어 전해진다.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들이 염전에 정착했는데 소금이 한창 나던 철에는 소래염전 근로자가 3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마땅한 산업시설이 없던 때에 대단한 고용창출이 아닐 수 없다.

농업과 어업, 그리고 염전 일을 병행하던 월곶이나 포동의 토박이들은 알차게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과거 달월염전에서 일했던 최승현(70) 씨에 의하면 일손이 달리는 철에는 전업농사꾼들도 소금 저 나르는



일을 할 수 있었기에 달월이나 새우개 토박이들은 어려운 시절에도 밥 굶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햇빛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힘만으로 천일염을 만드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았나 보다. 흠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맨발로 소금밭에 들어가야 했는데, 봄이나 가을에는 물이 너무 차고 한여름 피약벌 아래에선 또 너무 뜨거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금을 창고까지 나를 때는 긴 막대기를 엮어서 앞뒤에 바구니를 매단 목도를 이용했는데, 목도에 담기는 소금은 120kg을 훌쩍 넘기기 일쑤고 많을 때는 150kg쯤 담기는 경우도 흔해서 이것을 한쪽 어깨에 메고 나르자면 어깨 성할 날이 없었다. 그래서 염전 사람들은 발과 어깨만 보면 소금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낼 수 있었다.

염전 일이 고되다 보니 술을 약 삼아 마시는 일도 많았다. 황해도 출신으로 60년대 초에 포동에 정착한 홍신문(69)씨는 그 시절 술마져 없었다면 아마 염전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콩보리밥 도시락으로는 허기진 배를 달래기도 힘들어서 새참에 술 한 사발 들이켜고 나면 배고픔도 시름도 잊고 다시금 힘이 났다는 것이다. 달리 안주거리가 없을 땐 소금 한줌 집어먹는게 다였고 갯고랑

에서 망둥이라도 잡아 끓이면 아주 훌륭한 안주가 되었다.

동이 틀 무렵 출근해서 소금을 다 걷어야만 퇴근할 수 있었던 염전 일, 비가 내리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잠을 자다가도, 추석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하다가도 뛰쳐 나와야 했던 고달픈 염부생활!

그러나 소금이 오기 시작하면 염부들은 저절로 신명이 났다. 서풍이 불어오면서 찰랑이는 물에 소금밭이 뜨기 시작해, 하얗게 엉겨붙으며 소금꽃이 피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목도를 메는 염부는 힘 자랑을 하느라 창고까지 한달음에 내달아 소금을 부리고는 다시 소금밭까지 뛰어와 다른 사람을 재촉기도 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낭만이 있었다는 게 최승현 씨와 홍신문 씨의 회고다.

소래염전은 근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겐 한편 흐뭇한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염전 벌 한가운데 갯고랑이 더없이 즐거운 놀이터였던 개구장이들은 썰물에 소래까지 떠밀려 갔다가 밀물에 포동까지 떠



밀려 오며 한여름을 보냈다고 한다. 물이 많아진 갯고랑을 죽기 살기로 헤엄치다 보면 저절로 수영실력이 늘었다.

진흙 위에서 미끄럼을 타다 지루해질 무렵이며 산처럼 쌓인 소금에 눈을 돌렸고 그 새하얀 빛에 저절로 욕심이 생겨 셔츠자락에 한 움큼씩 싸안고 도망치는 짓도 자주 했건만, 놀다보면 녹아서 흔적도 없어지는 소금인지라 아이들의 서리는 항상 보람이 없었다.

##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단상

소금 한 가마가 곧 쌀 한 가마였다는 이야기는 어느덧 전설이 되었다. 쌀이나 소금이 더이상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식생활의 변화와 함께 값싼 수입산에 밀리고 대량생산되는 가공염에 밀린 천일염은 점차 쇠락의 길로 들어서고 소금을 일궈내던 염전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폐업을 하게 된다. 소래염전도 화려한



시절을 접고 1996년 7월 31일자로 마침표를 찍었다.

폐전 이후에 염전의 길모습은 급속하게 피폐해졌다. 일제가 평생을 켜지 않는다는 명성의 일명 스키목(일본산 삼나무)으로 지은 소금창고는 그나마 건재하지만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기울고 뜯겨져 곧 쓰러질 듯 위태롭기만 하다. 그나마 불에 타 소멸된 것이 부지기수다.

염차가 지나다니던 미니 레일은 돈이 될만해서인지 모두 걷혔고, 이제는 염전에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연히 발견한 원시림 같은 이곳에 매료당한 사람들만이 곧 사라져 갈 염전의

풍경을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고 있다.

그래도 사람의 관심이 멀어진 후에 염전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 시커먼 갯고랑에서는 각종 게들이 한가롭고, 그걸 잡아먹기 위해 각종 조류의 방문도 끊기지 않는다.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자란다는 각종 염생식물은 군락을 이루며, 잠깐의 바람에도 몸을 부벼 하모니를 이룬다. 저희들끼리 생태고리를 잇고 있는 그 생명들에게 이곳은 폐염전이 아니라 그저 옛 염전 터일 뿐이다.

포동 새우개 앞에서 드넓은 염전 벌을 마주하고 서면 저 멀리 석양을 머리에 이고 낮보다 환하게 깨어나는 월굴 신도시가 보인다. 이곳 옛염전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처럼 개발의 진두지휘 아래 번쩍이는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가늠할 순 없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건조한 무채색으로 가만놓아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온통 화려한 색으로 도배하기보단 어느 한구석, 초라하면 초라한대로 서글프면 서글프네로 간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이곳은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 근대화의 뒷안길이기도 하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한 시대를 살아낸, 우리 사는 곳에서 잠깐만 눈 돌리면 만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니 말이다.

하긴 사라지고 잊혀져서 안타까운 것이 어디 옛염전뿐일까마는...



# SIHEUNG CONCERT

2003 트락콘서트

“골목까지 문화예술 배달해요”

## 트락콘서트





## 7월 첫 공연... 연말까지 총 10회 회당 500명이상 참여... 인기공연으로 정착



도움말 / 시흥시청 문화진흥과 · 글/ 박 지 숙

옛날에는 어느 집이나 뜰이 있었다. 텃밭처럼 푸성귀를 심기도 했고, 화단으로 꾸며지기도 했다. 마당이 집안일을 처리하는 공간이었다면 뜰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 휴식의 공간이었다. 가령 봉숭아를 심었다가 여름한철 온 손·발톱을 물들이며 첫눈을 기다렸던 아련한 추억이 뜰에 묻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생활에 뜰이 사라졌다. 그것은 아마도 집의 형태가 현대화되면서 아파트가 생겨난 이후인 듯 하다. 많은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아파트이지만 자연과 더불어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뜰, 그 속의 작지만 큰 문화생활을 우리는 빼앗긴 것이다.

시흥에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정왕동, 연성동, 신천동 어디를 가나 아파트 천지다. 한 발짝 내딛으면 땅을 수 있었던 휴식의 공간은 온데간데없고 똑같은 구조의 공간에서 챗바퀴 돌 듯 건조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흥시가 발벗고 나섰다. 주린 배를 움켜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먹을 것을 챙겨주듯, 문화에 굶주린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마련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뜨락콘서트'이다. 뜰의 방언, 뜨락이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동별로 찾아가 각종 공연을 펼치는 것. 2003년 7월 매화동을 시작으로 하반기동안 약 10여차례의 공연을 펼쳤다. 그 결과는 대성공. 1회 평균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관람하는 인기공연으로 자리잡았다.

사실 뜨락콘서트가 선보이기 전 시흥시에는 문화공연이 전무한 상태였다. 시 자체가 신천, 정왕, 연성 3개 권역으로 나뉘지는 다핵화된 도시이고,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없어 문화행사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89년 시로 승격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문화분야에서는 과거 시흥군 시절의 한계를 벗지 못했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시청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기획했고, 모든 스케줄과 공연내용을 시가 직접 지휘하며 한발한발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 ▶ 2003년 뜨락콘서트 개최 현황

행 사 명	행사일자	장 소
제 1회 뜨락콘서트	03.4.26	매화동 매화공원
제 2회 뜨락콘서트	03.7.26	포동 시민운동장
제 3회 뜨락콘서트	03.8.21	월곶동 풍림아파트 주차장
제 4회 뜨락콘서트	03.8.29	신천동사무소 앞 근린공원
제 5회 뜨락콘서트	03.9.5	장곡초등학교 앞 근린공원
제 6회 뜨락콘서트	03.9.19	목감초등학교 운동장
제 7회 뜨락콘서트	03.10.7	시흥중학교 운동장
제 8회 뜨락콘서트	03.10.10	정왕동 53블럭 근린공원
제 9회 뜨락콘서트	03.10.15	과림동 600경자동차대대
제 10회 뜨락콘서트	03.10.16	은행동 비둘기공원 공연장



프락콘서트에서도 멋진 화음을 들려준 시립 어머니 합창단

갓난아이의 걸음마 연습처럼 넘어지고, 다쳐가며 회를 거듭해 나갔다. 첫 공연이었던 매화동 공연에는 수화공연, 아버지 중창단 등 시흥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형태의 공연팀을 출연시켰다. 하지만 시민들의 높은 문화욕구에 공연의 질이 뒷받침이 되어야 프락콘서트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2회부터는 일부 출연진이 재조정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시에서 직접 행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출연진 섭외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포착됐지만, 외주로 할 경우에 소요되는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높은 참여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공연을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시흥주민이 직접 만들어 간다면 더할나위가 없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법이 접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정도의 주민자치센터이지만 앞으로 문화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이상적인 지역문화의 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문화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화인들이 스스로 지역 곳곳에서 작은 공연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공연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거기에 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문화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프락콘서트는 야외에서 펼쳐지는 공연인 만큼 연간 4월부터 10월경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2004년에도 5월경 첫 공연을 가질 예정이며, 기존의 국악, 클래식 공연에 대중음악을 가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형 기획공연과 한달에 60회 정도의 길거리 소공연도 계획되고 있어 더 풍성한 문화도시로 시흥시가 한발 다가서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본다. 또한 2003년 지역의 연고자들을 토대로 결성된 챔버오케스트라와 같은 많은 팀이 생겨나 문화인들의 결속이 지역 문화발전에 한층 기여하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현장스케치 | 2003년 8월21일 월곶동 풍림아파트

## 격식 떠난 편안한 인방공연 풍성한 음악의 향연 속으로

저녁 8시, 전통연희단 '꼭두쇠'가 연주하는 해금선율이 바닷바람을 타고 동네 전역에 울려 퍼졌다.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 하지만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여름 열기와 더불어 뜨거운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전통음악, 클래식, 합창,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은 풍성한 음악의 향연을 놓칠세라 유모차를 끌고, 부채를 들고 분주하게 공연장을 찾았다. 미리 준비된 좌석은 이미 만석. 하지만 서 있다고 음악소리가 달리 들릴쏘냐. 편안한 복장으로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다.

'꼭두쇠'의 공연이 끝나고 펼쳐지는 '시흥교향악단 현악4중주'.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엘가의 '사랑의 인사'까지 바이올린과 첼로가 어우러져 내는 선율에 모두들 말을 잃고, 눈을 감는다.

잠시후 또다시 울려 퍼지는 꼭두쇠의 호적(태평소) 시나위 공연. 장구, 징, 북, 팽과리가 우리 고유의 흥겨운 가락과 열정의 무대를 만들어 낸다. 고조될 때 터져 나오는 박수와 함성. 특히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의 큰 환호를 받은 공연이었다. 그 열기는 '시립어머니 합창단'의 젊음의 노트, 마이웨이, 만남, 쿵따리 샤바라 등 대중가요 열창으로 이어졌다. 주옥같은 곡들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함께 따라 부르며 온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분위기를 압도하는 강석훈씨의 색소폰 연주가 시작됐다. 무겁게 내리 깔리는 소리가 심금을 울리며 퍼지더니 급기야 "앵콜" 소리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좋은 사람들'의 통기타 연주, 유모차에서 아빠의 부채질을 받으며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이의 꿈속처럼 아득한 추억의 멜로디가 관객의 아쉬움을 어루만졌다.



## | 2003 프락콘서트 참여수기 | 현악4중주 자연과 상상력... 대중과 클래식 만남

글 / 조 문 희

“나는 음악에 자유를 바라고 있다. 음악은 자연과 상상력과의 만남 위에 성립된다. 그러므로 음악은 어느 예술보다도 더 큰 자유를 숨신다.” 20세기 프랑스 음악의 개척자 드뷔시가 한 말이다. 프락 콘서트는 드뷔시가 말한 자연과 상상력, 덧붙여 대중과 클래식의 만남을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의미있는 자리였다.

음악이란 청중들과 말 대신 멜로디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과 청중사이의 그 소통은 일반인들에겐 아직은 소원한,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클래식이란 어렵고 복잡한, 격식을 갖추고 들어야만 하는 고급문화’라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 한사람의 음악인으로써 그러한 잘못된 경계심과 거리감을 무너뜨리는 일이 진정 프로다운 음악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자연과 상상력의 만남 위에 음악이 만들어내는 자유로움. 이번 여름 시흥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던 몇 차례의 프락콘서트에서 우리 현악 사중주단은 그러한 음악의 멋이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해지길 바라며 그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연주에 임했다. 이제 프락콘서트 중 기억에 남는 몇몇 장면들을 이야기 해보겠다.

넓은 갯벌이 보이는 그곳의 작은 무대. 무척이나 습하고 더웠던 월곶동 콘서트에서 우리가 선택한 첫 곡은 모짜르트의 ‘아니네 클라이네 나하트무지’ 1악장이었다. 작은 야곡, 즉 소야곡이라고 불리는 이 곡을 조용한 가운데 연주하기 시작했다. 까만 밤하늘과 초롱초롱한 별들, 무더운 공기, 간간이 불어오던 저녁바람이 그 곡에 정취를 더해 주었고 연주를 하며 내내 마치 모짜르트가 살던 그 시대로 돌아가 연주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가지게 되었다.

야외에서 벌어진 화려하고 우아한 저녁 만찬, 거기에 가미되는 중요한 소스 역할의 이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이 우리 앞에 그려지고 있는 듯 했다. 모짜르트는 그의 뛰어난 재능으로 궁중 음악가로 발탁되어 신임을 얻었다.

이 곡은 그의 곡 중 사교적 특성이 강한 몇 안 되는 작품들 중 하나라 무엇보다도 대중성이 강한 음악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런 그의 음악을 시대를 넘어 녹푸른 자연에서 관객들과 함께 숨쉬며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다. 같은 곡을 지금까지 술하게 연주해보았지만, 아마 그날처럼 그렇게 집중하면서 상쾌한 희열 속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 또 다른 프락콘서트는 어떤 작은 초등학교에서 열렸다. 그날은 뜻하지 않게 바람이 몹시 불어왔다. ‘Moon River’ 라는 곡은 그 바람과 함께 연주되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애잔한 추억처럼 바람 또한 그렇게 불어옴을 느끼며 개인적으로 지나간 추억들 속에서 그 곡을 연주했던 것 같다.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곡을 연주할 때는 꼭 막힌 실내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야외무대라서 인지 저녁 풀 내음과 사람들의 자유분방함이 더 강한 음악에의 몰두를 가져다 주었다. 탱고의 열정과 냉정에 심취되어...

모든 곡들은 비록 대곡도 아니고 그리 어려운 테크닉을 요하는 곡들도 아니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쉽게 청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무언가를 관객들에게 남기고 싶은 우리들의 뜻은 과연 전해졌을까?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도 이와 같은 좋은 의도를 가진 콘서트들이 많다.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이다. 그곳엔 매년 6월 20일을 ‘음악의 날’ 이라고 부른다. 그날은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밖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날이다. 나는 그날 실내악 공부를 같이 하던 프랑스 친구와 함께 마치 방랑자처럼 바이올린을 들고 나갔다. 피아노를 치는 친구라 피아노가 있는 바(Bar)를 찾아가 여기저기서 연주했던 기억이 난다.

음식을 먹던 사람들의 행동은 연주를 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짐이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먹고 우리의 음악을 듣고, 그들에게 클래식이라는 음악은 특별한 위치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생활 속에 자유롭게 클래식 음악들이 녹아있다.

역시 유학시절 여름 음악 캠프에 참여했었다. 아주 작은 마을에서 개최되었던 캠프는 그 지역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지역주민 모두가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을 열렬히 반겨주었다. 그 보답으로 우린 마지막날 그들을 위하여 작은 교회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연주를 위한 연습의 시간들이다.

땀별이 내리쬐는 언덕 위에서, 음식을 만드는 커다란 주방에서, 숲 속의 나무들 사이에서 몇 마리 강아지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무한의 세계를 만들어놓고 연습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자유분방함 속에서, 그리고 자연에게서 진정한 음악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것들이 음악의 정신적 세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프락 콘서트 또한 같은 맥락일 것이다. 자연과 음악을 통한 고정된 일상에서의 탈출. 그 자유의 순간을 청중들에게도 선사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음악인들이 그것들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관객들에게 바로 전해지는 것일 테고 이런 실외연주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프락콘서트 중 하나 아쉬웠던 점이라면, 그런 의도에 충실해 대중적이고 쉬운 곡들이 들어간 건 좋았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몇 곡 정도는 클래식에 대한 신비함과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도발적인 곡들을 들려줄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음악을 통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에 더 귀기울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락콘서트는 작지만 커다란 의의를 가지지 않나 생각해본다. 앞으로도 프락의 문화가 이렇게 자유를 숨 쉴 수 있는 따뜻한 터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2003년 한해동안 프락콘서트를 위해 무대 뒤에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 1 2003 프락콘서트 참여하기 | 슬리핑잼

###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글 / 박 상 도

안녕하세요. 저는 슬리핑잼의 보컬 박상도라고 합니다. 뭘 잼이냐구요? 저희 밴드 이름입니다. 저희들의 음악이 궁금하신 분은 [cafe.daum.net/sleepingjam](http://cafe.daum.net/sleepingjam)을 방문하시면 음악과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공연을 위해 수고하신 분 또한 많았구요.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운이 좋게도 프락콘서트를 통해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저희의 음악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프락콘서트를 기획하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여러 공연을 해왔지만 프락콘서트 때의 음향장비, 조명, 모니터들은 정말 수준급이었다. 장비 대여비가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문화공연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시흥시청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공감하며 뜨거운 공연을 했던 시민여러분, 그날의 공연들은 앞으로 저희가 음악을 계속 하는 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멤버들의 한마디〉

시흥시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러 좋은 팀들과 야외무대에서 그것도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을 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점차 다음 공연날짜가 기다려 질만큼 매우 인상깊은 공연을 했던 것 같다.

〈기타 치범〉

공연 후 무대를 내려 왔을 때 우리를 반겨주던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난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드럼 상명〉

밴드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공연하러 와달라는 친구들을 보며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었구나’ 하는 생각에 공연을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뿌듯했다. 앞으로 이런 공연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들 또한 모두 기회만 된다면 언제나 열심히 공연에 임할 생각이다.

〈베이스 종윤〉





**15회 연성문화제**  
**백일장 수상작 작품**

*15th Yeonseong Festival*

초등부(저학년) 시부문 / 장원

## 코스모스

금모래초등학교 2-4 고다은

우리는 팔남매  
옹기종기 모여 살지요

바람을 만나면  
춤을 추지요

꽃벌을 만나면  
인사를 하지요

잠자리를 만나면  
향수를 뿌려 주지요

## 소 래 산

금모래초등학교 2-6 이단비

일요일 아침 소래산에 올라갔다. 나에게는 한없이 높아 보이는 소래산. 자주 가보진 않았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갈수록 낮아진다. 갈 때마다 색깔이 다르고 산 속의 향기가 다르게 느껴진다.

산 위의 하늘은 푸르고 또 푸르다. 가을의 소래산 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은 파아란 하늘과 구름을 보며 무엇을 생각할까? 하늘을 나는 구름이 부러워서 바라볼까? 샘이 나서 바라볼까? 아니면 낙엽도 날아보고 싶어할까?

언제나 산에 오르면 꼴찌를 하시는 우리 엄마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십니다. 내가 “엄마, 왜 그렇게 못 와?” 라고 물으면 엄마는 “낙엽처럼 늙어서 그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뭇가지의 새싹처럼 파릇파릇 싱싱하잖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빠는 일부러 어머니가 늦게 오시는 거라고 꾀속말을 해준다.

나는 위에서 엄마의 손을 잡아 끌어주고, 오빠는 뒤에서 힘차게 엄마를 밀어준다. 우리 엄마는 연극을 잘 하십니다. 산에 오를 때 자신만을 위해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나에게 도와주며 쉬어 가는 여유를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힘들어하시는 척 하십니다. 즐겁게 산에 오르다가 귀를 기울여 보면 어디선가 계곡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린다.

소래산에는 큰 계곡이 없고 줄줄줄 흐르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있다. 살짝 손을 담구어 물을 떠서 입가에 대어보면 정말 차갑고 시원하다. 그런데 갑자기 물줄기의 시작이 궁금해졌다. 물줄기 따라 올라가고 올라가도 계속 물은 맑게 흐르고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환하게 비추면서 계곡 물은 반짝 반짝 아름다운 빛을 멋지게 뽐내기도 한다.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저 물처럼 아름답고 밝은 빛을 내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보고 빛을 내라고? 내가 무슨 유리공주야? 빛을 내게” 했더니 어머니께서 웃으셨다.

우리가족은 어느새 정상에 거의 다 왔다. 누가 먼저 빨리 우리 집을 찾는지 시합을 했다. 그런데 내가 제일먼저 소리쳤다. “저기, 저기, 저기라니깐! 오빠 내가 제일먼저 찾았지?”라고 말하며 오빠에게 큰 소리를 쳤다. 일단 큰 소리를 치고 우리 집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집이 모두 비슷하게 생겨서 찾을 수가 없었다. 나에게 높기만 하던 아파트가 내 발 밑에 아주 작게 보였다.

오빠가 눈치를 챘는지 나에게 우기시대장이라고 놀려댔다.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신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우리 가족은 산을 내려왔다. 물줄기의 시작은 찾지 못했지만 즐거운 하루였다. 소래산을 내려오면서 낙엽들에게 말했다.

“나무에서 피어나고, 마음껏 푸르름을 자랑하다 낙엽이 되어 지금은 내 발 밑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내 귀를 즐겁게 해주어서 정말 고마워.”

초등부(고학년) 시부문 / 장원

## 나무의 뿌리

금모래초등학교 5-4 이현수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숨었네

땅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 숨었네

땅의 힘을  
야금야금 먹다가  
들켜버린 나무

땅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땅의 힘을  
계속 먹게 되었네

땅의 힘을  
계속 먹은 나무  
어느새  
산처럼 푸르게 컸네

## 사랑이 목마른 꽃

하중초등학교 4-1 민지인

나는 어여쁜 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못생긴 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아주 고요한 숲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태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지고 태풍은 점점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저의 뿌리로 땅을 잡았지만 태풍의 힘에 의해 전 날아갔습니다.  
 죽겠지 생각하며 쓰러졌지만 어느새 일어나 보니 하수구 속 흙더미에 꽃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예쁜 아이가 절 화분에 담아 키워 주다가 산 속에 묻어주었습니다.  
 찢어지고 못생겨졌지만 그 아이가 무척 고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내가 그 아이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힘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사라지고 불행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꽃을 꺾으며 제게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겁이 났습니다. 아, 이제 죽겠구나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저를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 내가 초라하고 불품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아이의 사랑을 다시 받고 싶었습니다.  
 전 점점 기운을 잃게 되었습니다. 꽃은 점점 시들고 저는 말랐습니다. 왠지 졸렸습니다.  
 그 아이가 오면 기운이 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꾸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고요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아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전 자꾸 힘이 솟았습니다.  
 시간이 흘렀는지 일어나 보니 꽃들이 옆에 있고, 햇님이 절 반기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 쓸모 없는 꽃 같아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니 왠지 더욱 슬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전 쓸모 있는 꽃이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주 못생기고 쓸모없지만 다음 생에는 꼭 아름다운 꽃이 되어야겠고 사람들이 꽃을 많이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언제나 아름답게 빛나며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피어나 예쁜 꽃이 되어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기를... 나는 항상 이 자리에서 사랑을 기다리며...

##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국가

은행중학교 1-7 최성원

‘나는 우리나라가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이 자서전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문화의 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진정한 문화의 힘이란 힘보다는 문화로 그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국지에 나오는 ‘칠종칠금’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정신적 굴복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인 것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며 명멸해갔는데 그 수많은 문화는 결국 한나라의 문화에 융화되어 한 문화의 아류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한족이 가장 대우받고 있으며 다른 소수민족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나라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을 가진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국가로서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5000년 전 오늘, 단군 왕검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시작된 우리의 역사는 벌써 5000년이라는 무수히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유지되어 왔고 3000년이 넘는 외적의 침입에도 항상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넘기고는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주변은 물질문명의 이기에 빠져 오직 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메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들은 우리의 문화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그동안 우리의 문화는 어처구니없게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있었다. 조선말에는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져 있었고 그 상황에서 당파싸움마저 벌어져 수탈당한 수많은 물건 중에 조상들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 재가 있음에도 알지도 못하거나 눈만 뻗고서 바라보아야만 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 나라에서 자신들의 물건조차 이제 와서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모두가 마음가짐을 지금과 달리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월드컵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성공적이라 볼 수 있는 경제의 발전도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국민 하나 하나가 모두 우리나라는 뛰어난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국민과 정부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력한다면 김구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나라가 될 것이다.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우리 한민족이 마음먹어 해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

## 믿음의 뿌리

한인고등학교 2-4 이해은

우리 집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빛이 많았다.

그렇게 무너질 듯 위태로운 우리 집을 여태껏 하나로 묶어준 건 믿음이라는 단단한 뿌리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가족 모두 남들에게 어려운 것을 보이기 싫어하여 형편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집이 꽤나 넉넉한 집안이라고 알고 있다.

내가 아홉 살 때까지는 지하에 살아 비가 오면 항상 집안으로 비가 새어 들어오기 일쑤였고, 늘 귀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 가득 찬 공간에서 지독한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가족 모두 나름대로 만족하여 다른 집과 다름없는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살았다.

그러다 형편이 조금 나아져 이층 주택 집으로 이사를 갔다.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만 살다 앞이 환하니 보이는 이층집은 마냥 좋기만 했고 우리가족 모두 이 지붕아래서 평생 행복할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헛된 꿈일 뿐이었다. 아빠가 운영하시던 공장이 어려워져 빛은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우리가족 역시 그 속에서 행복할리 없었다. 아빠는 매일 저녁 안 드시는 날이 없을 만큼 술에 의지하였고, 술로 모자라 도박이란 도박은 모두 하셨다.

그에 불만이 많은 엄마와의 다툼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었고, 아빠 엄마 사이에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엄마는 언니와 나를 불러 놓고는 우리 셋이서 대구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다.

대구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외할머니와 사촌들이 있어서 왜 이사를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이사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한참 들떠있었다.

아빠, 엄마의 타는 속마음도 모른 채 말이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와 떨어져 산다하는데도 헤어짐에 슬프기는커녕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술 취해 들어와 엄마와 다투는 아빠가 자긋자긋하게만 생각했었으니까 오히려 잘된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이사가는 날이 다가와 우리가족은 대구로 향했다.

대구에 도착하자 우리가 살집에 할머니와 사촌들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한 초등학교 앞에 집을 얻었는데 일층에 집이 있었고 현관에는 셔터가 있었고 안쪽에 방이 있는 식당

## 고등부/수필부문/장원

같은 집이었다. 이삿짐을 풀고 저녁식사를 위해 우리 네 식구가 상에 둘러앉았다.  
 아빠와 함께 하는 마지막 식탁이었다.  
 아빠는 술을 한잔 드시고는 끝내 참던 눈물을 보이셨다.  
 그때 아빠가 지난날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아빠라고도 부르기 싫을 만큼 마음속으로 원망했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아빠의 악한 모습과 작게 움츠  
 러든 아빠의 어깨를 보며 안쓰럽게만 여겨졌고 가슴이 쓰렸다.  
 아빠를 그렇게 보내고 나는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아이들은 내 말을 따라하며 서울말은 참 웃기다며 놀려댔다.  
 며칠 놀림을 받다가 내 활발한 성격으로 금방 적응해나가 아이들과는 금새 친해져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엄마는 우리 집에 분식집을 차리셨다.  
 언니의 이름을 따서 정아분식이라는 간판을 달고 떡볶이와 오뎅, 봉어빵 등을 팔았다.  
 먹을 것이 많아 좋긴 했지만 엄마가 분식집을 하시는 게 창피하게만 생각되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러면 얼버무리며 피하곤 했었다.  
 엄마는 나와 언니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우리를 엄격히 대하시면서도 기죽지 않게 하  
 려고 좋은 것은 뭐든 해주시려 하셨다.  
 아빠는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하루종일 일하시며 술도 즐기시고 전에는 일삼아 하던 나쁜 도박에도 손  
 을 떼셨다.  
 우리가족이 다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아빠는, 이년 내내 식당 밥을 드시며 추운 공장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주무시며 당신의 몸을 다 버리시며 가족을 위해 일하셨다.  
 그 노력 끝에 우리는 서울에 다시 이사와 다같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 할 수 있었다.  
 힘겨운 시기를 참고 견디면 따스한 시기가 온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다.  
 이 가을에 나는 그런 생각에 참 뿌듯하다.  
 힘겨운 시기를 견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족에게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가 아닐까.  
 우리가족은 마음의 부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족은 행복하다.

## 박하꽃 추억

시흥시 정왕동 이미현

나는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울 때까지 그 꽃의 향기를 그리워하였다. 그러나 정작 그 독특한 향기를 가진 꽃의 이름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련하게 떠오르던 그 꽃의 모양을 가진 것들을 볼 수 없었다. 내 시골집 울타리에 줄지어 피어 있던 꽃. 여름이면 피어나기 시작하여 늦가을까지도 독특한 향기를 풍기곤 하였다.

앞 집 창희와 깨진 시금파리 조각으로 소꿉장을 할 때마다 모든 음식의 재료가 되곤 했던 꽃이었다. 결혼을 하고 첫아이를 낳은 지 얼마 후 꽃을 아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꽃 울타리와 넝쿨장미는 사라지고 대신 굳건한 대문 있는 울타리가 들어섰다. 그리고 친정에 갈 때마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갖는 낯선 느낌이 바로 그 박하꽃 향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화요일마다 트럭 가득 화분을 싣고 들어오시는 아저씨가 있다. 어느 날 바로 그 곳에서 작은 화분에 양중맞게 앉아 있는 그 꽃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추억 속의 그 꽃이 바로 박하꽃이었다는 것을.

얼마 전 나는 엄마에게 여쭙보았다. 어떻게 시골 울타리에 박하꽃이 무리 지어 피어 있게 되었는지를. 그 꽃은 엄마가 시집을 오셨을 때부터 거기 그렇게 피어 있었다고 한다. 해마다 밑동을 쳐내도 더 넓게 퍼지곤 해서 오히려 귀찮을 정도였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해부터인가 말라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없애버리셨다고 한다. 시집살이처럼 매웠던 몇 십 년 전 겨울 한파도 견딘 기특했던 꽃들이었는데... 말씀을 흐리시던 엄마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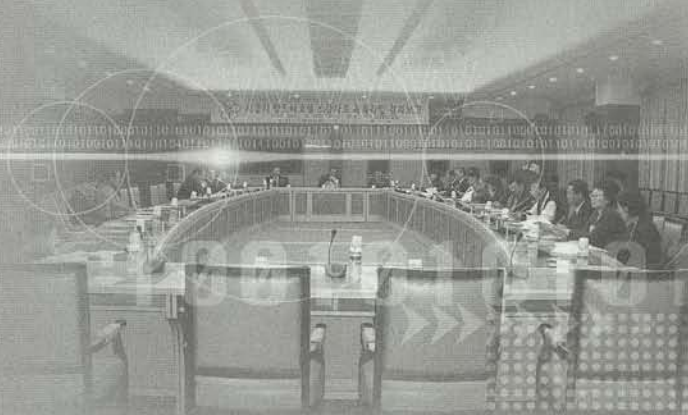
“꽃들도 사랑하는 손길을 아는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였던 것 같구나.”

나는 지금 우리 집 베란다에다 작은 화분에 여러 가지 허브를 키우고 있다. 어떤 것들은 무척 까다로워서 실패도 자주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채워놓는다. 그리고 박하를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 창희를 생각하고, 할머니를 생각하고, 그 특별했던 꽃향기를 생각한다.

박하꽃과 함께 했던 그때가 책갈피 속의 마른 꽃잎처럼 아련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내 아들, 딸에게도 그런 추억을 심어주고 싶어 가끔은 간절히 생각해본다. 과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내 나이정도가 되면 가슴이 저려오는 추억이 떠오를까? 그 추억 속에서 엄마의 얼굴도 생각하게 될까?

2003  
2004

시흥문화원  
사업결산과 계획



제15회  
연초문화제





# 2003년 사업결산

## 1) 대보름행사

일	시	2003년 2월 15일
장	소	포동운동장
참 여 인 원		2천명
사업개요 및 평가		기존에는 국악협회에서 진행하다가 올해 문화원이 처음 주최가 되어 진행한 행사였기에 행사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추운 날씨로 인해 행사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음.

## 2) 월미두레풍물놀이 고증 및 재현

일	시	2003년 4월~9월(고증사업) 9월 17일(재현,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출전식) 10월 4일(연성문화제 기간 은행동 농협 앞)
사업개요 및 평가		고려대 유영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 월미두레풍물의 전승자인 월미마을 주변과 부락을 대상으로 민속학적 현지조사와 역사적 문헌조사를 거쳐 '월미두레풍물놀이' 고증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제된 월미두레풍물놀이를 전통연희단 '꼭두쇠'가 중심이 되어 재현공연을 갖고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시흥시 대표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재현을 위해서는 단원들 개개인이 가진 기량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전통연희단 '꼭두쇠'에 재현을 의뢰하였다. 월미두레풍물놀이가 참여인원이 70여명,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이 되는 큰 공연이기에 놀이 뒷부분을 시흥주민들에게 선보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또한 월미두레풍물놀이를 시흥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풍물팀이나 지역 풍물팀을 선정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3) 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일	시	2003년 2월 16일 ~ 3월 31일
사업개요 및 평가		온라인시대에 발맞춰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문화원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문화원 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며 지역사회 대표 문화기관으로서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홈페이지 관리가 문화원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자를 양성하거나 의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4)故 이한기 위원 수집자료 전시회

일	시	2003년 10월 1일~10월 10일
장	소	시흥시청 별관 4층 국제회의장
참 여 관 객 수		500여명
사업개요 및 평가		시흥시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였던 故 이한기 선생이 수집하여

시 향토사료실에 보관해 오던 자료를 네 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전시하였음.故 이한기 선생이 수집한 자료 중 현재 시흥시 향토사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부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전시함으로써 유족 및 시민에게 향토자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전시회 개최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음. 개최결과 관람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흥미를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시회가 자주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명하였음.

## 5) 제15회 연성문화제

일	시	2003년 10월 2일 ~ 4일
장	소	은행동 비둘기공원 · 은행동 복지회관 · 농협앞 도로
참 여 관 객 수		5만명
사업개요 및 평가		농업기술센터, 대야복지회관, 복음신협사진동호회, 가람도예연구소 등이 참여하였고, 주요행사들은 사진전시회, 故 이한기위원 수집전시회, 강희맹과 관곡지 학술회의, 무대행사, 참여행사 등으로 전문기획팀을 섭외하여 예년에 비해 보다 짜임새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점과 지역고유축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단체와 시 당국 등의 협의와 고민이 요구됨.

## 6) 영상자료실 개관

일	시	2003년 12월 17일 ~ 18일
장	소	문화원 2층 영상자료실
사업개요 및 평가		2004년 문화원 사회교육활동과 시흥역사자료전시관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시흥역사 소개 영상물 상영을 목적으로 도비와 시비의 지원으로 이틀간의 공사로 완공됨. 시흥의 역사나 문화제에 대한 체계적인 촬영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앞으로 문화원에서 좋은 영상교육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 필요.

## 7) 시흥문화 6집 발간

일	시	2003년 10월 ~ 2004년 1월
사 업 개 요		기획기사는 시흥의 상징물이 된 갯벌을 선정하였고, 연성문화제 가족체험기 · 연성문화제 백일장 특선작 · 시흥지역 문화탐방 등으로 구성되며 1월초 발행예정.

## 8) 故 이한기위원 수집자료 목록작업

일	시	2003년 5월 ~ 2004년 2월 29일
장	소	시흥시청 전시실
사 업 개 요		故 이한기선생이 남긴 자료 중 시청 향토사료실에서 보관 중이던 자료를 1차로 목록작업

함. 2003년 12월 10일 과천문화원 및 가내 보관 중이던 자료를 인수하고 12월 21일부터 2차 목록작업이 예정됨.

## 9) 시흥의 지명유래조사사업

일	시	2003년 7월 ~ 2004년 10월
사	업	개
요		2003년 7월 수암권역에 대한 지명유래조사가 시작되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흥지역의 지명유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사업을 확장하여 2004년에 <시흥의 지명유래집> 발간을 목적으로 수암권·군자권을 2004년 2월까지 마치고, 2004년 상반기에는 소래권을 조사한 후 2004년 하반기에 <시흥의 지명유래집>을 발간할 예정.

## 시흥역사자료전시관 위탁운영

### 1) 홍보책자 인쇄

일	시	2003년 8월
사	업	개
요		시흥역사자료관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1만 5천부 제작한 후 각급 학교·공공기관·유치원·사회단체에 배포.

### 2) 시흥의 역사 소개 교육 영상물 제작

일	시	2003년 11월 ~ 12월
사	업	개
요		전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흥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 방문이 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인 점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제작.

### 3) 시흥 포동 염전 모형(디오라마) 제작

일	시	2003년 12월 ~ 2004년 2월 중순
사	업	개
요		시흥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포동염전을 소재로 삼아, 천일염 제작과정과 그 주변경관을 주제로 한 모형(디오라마)을 제작하여 전시관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옛 향수와 포동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좋은 방문코스로 만들어 시흥을 홍보할 예정.

### 4) 시흥역사자료전시관 관람현황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일 반	합 계
2003/5/27~	1,242	335	172	894	2,643
2003/12/31					



# 2004년 사업계획

## 1. 문화행사

- 1) 해맞이행사
- 2) 대보름행사
- 3) 제16회 연성문화제

## 2. 사회교육활동

- 1) 역사문화대학
- 2) 풍수와 인테리어
- 3) 분재 · 야생화 가꾸기
- 4) 다이어트 건강요가

## 3. 전통민속놀이 발굴 재현

- 1) 소규모향토민속축제육성(군자성황제)
- 2) 전통민속놀이 발굴 및 재현(군자성황제)
- 3) 전통민속놀이 전승(월미두레풍물놀이)

## 4. 기 타

- 1) 문화원 소식지(시흥문화 7호) 발간
- 2) 백두대간 야생화탐사(봄)
- 3) 갯벌에서 만나는 현산어보에 담긴 비밀(여름)
- 4) 사진실기와 천년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사찰기행(가을)
- 5) 농촌체험(겨울)(2,000천원)
- 6) 시흥시 건강달리기대회
- 7) 지명유래조사 및 책자발간

## 5. 역사자료전시관 운영

- 1) 2회 기획전시 및 운영비
- 2) 야외전시장 설치 및 환경정비

## 6. 故 이한기 위원 수집자료 관련

- 1) 수집자료 도록 제작 및 D/B 구축
- 2) 수집자료 특별전시회



발 행 처 | 시흥문화원

발 행 인 | 박 용 민

편집디자인 | 코인뱅크 404-3110

발 행 일 | 2004년 1월



**시흥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5번지  
T.031)317-0827·310-2706  
F.031)317-0828  
[www.shculture.or.kr](http://www.shculture.or.kr)